朝鮮日報 朝刊
朝夕刊十二面

社說

頻頻한寄附行爲의弊端 —特히地方農村에있어서—

近來 地方農村에서는 諸般負擔이 過重하야 中産以上의 階級들의 都市集中의 傾向이 만허젓다함은 新聞紙上에 屢次 報道된바이어니와 이에는 國稅, 地方稅와가튼 正常한 負擔보담도 公私를 莫論하고 所謂 寄附行爲에依한 過重한 負擔에 到底히 堪耐키 어렵다는것이 그들의 異口同音의 呼訴이다。吾人이 地方事情을 調査해보면 最近에는 더욱 그러한 傾向의 弊端이 甚해지고 잇는것이 事實이다。昨日 本紙에 報道된 順川郡會人面의 登山隊歡迎을爲한 寄附行爲로 그地方의 非難이 藉藉하다는것은 그 無少한 實例의 하나이다。

二

都市 農村을 勿論하고 그地方에 必要不可缺한 公共事業으로서 國庫支出이나 地方費로써 支辦키 어려운事業에는 寄附行爲에 依하야 이를行하는 不得已한때도 勿論 잇슬것이다。이러한境遇의 寄附行爲는 畢竟 當該地方人民의 自發的意思에 依할때가 만코 設令 自發的이 아니더라도 이는 正當한 行爲로認定하여야 할것이다。假令 私立學校를 세우기爲한 自發的寄附와 如한것은 贊成할것이다。그러나 人民의 自發的意思에 依함도아니오 地方社會를爲한 必要不可缺한 事業도 아닌 些細하고도 사사로운일에 寄附를 强要하야 一에도寄附 二에도 寄附를 請한다고해서는 地方農民은 一日도 그生에 安堵할수가업슬것이 아니냐? 事實 公共事業을 爲한 寄附만으로도 地方에서는 相當히 過重한 負擔이되고잇다。그런데 近者에 와서는 國庫나 地方費로 支出해도相關업슬것도 寄附로 하고 甚至於官公廳의 建築、郡守、警察署長等의 舍宅 建築等으로부터 地方官公吏의 赴任歡迎、退職餞別費、地方長官의 地方視察時의 歡迎費等에 至하기까지 寄附를 請하고 잇는곳이 적지아니하니 負擔過重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이어찌 正當한 寄附行爲라고 할것인가?

三

[illegible]도 吾人이 가장 遺憾으로 [illegible]바는 寄附를 請하기爲[illegible]가 直接 民家를 訪[illegible] 請하는것이다。[illegible] 必須不可缺한 公[illegible] 假令 起案者는 [illegible] 그事業에 努[illegible]

할것이 아니냐。

四

[illegible]한 寄附行爲는 單只 不平과 非難을 자아낼뿐이 아니라 民度에 맛지안는 過重한 負擔은 農村의 疲弊를 誘致하는 結果가 되는것이니 그러치아니하여도 累年의 災害에依한 農村의 窮乏은 甚大한바가잇고 稅金은勿論 賦役其他諸般負擔의 過重으로 購買力이 甚히 缺乏되[illegible] 農村에 不必要한 寄附까지 强要한다면 그結果는 可히 알일이아니냥。當局은 모름지기 如斯한 地方의 實情을 徹底히 調査해서 過大한 負擔을 加함에依하야 地方의 發展을 阻害하고 農民의 生活을 脅威하는 不當한 寄附行爲를 嚴重히 團束하고、特히 官公吏의 寄附行爲에 直接關與함을 禁하야써 이에依한 弊端을 一掃하도록 細心한 努力과 用意를 가지기를 要望하야 마지안는다。

侵略成果不承認案提出코 不如意하면斷乎聯盟脫退
『아』國代表投石으로 總會一波瀾難免
英佛은우물주물主義로一貫?

【쥬네브三十日發同盟】亞爾然丁代表안치노博士는 聯盟原則을支持하는 見地에서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合倂에 反對立場을堅持하고잇는데二十九日午前特히宿舍칼톤호텔에 에디오피아 皇帝 하일셀라시에 一世를 訪問하고 總會에서 侵略成果不承認決議案을 上程하고 總會各國代表等에 闡明하도록 進言하엿다고 傳한다 勿論亞爾然丁代表는 滿洲國에 關한一九三四年十一月의 總會決議를 援用하야 어데까지에 디오피아皇帝의 主張을 支持하리라고 觀測되나 萬一總會가亞爾然丁代表의主張을 無視하고不承認決議案으로 有耶無耶로 埋葬할境遇에는 同代表는斷然聯盟을 脫退할方針이라고觀測되는바聯盟을리드하는 英佛兩國政府는制裁撤回에依한 伊太利政府의 비위를 마추기爲하야 侵略成果에對하여는 一切우물주물主義로 一貫하리라고 傳하는데 亞爾然丁의 强硬한 決意에 總會는 一波瀾을 免치못할形勢이다

政府를 基礎로 끗까지 伊太利에 抗爭할 決意라고 보인다

對聯盟總會 白耳義의態度

【부랏셀二十九日發同盟】벨지움首相은 二十九日午後八時 下院의 討議終了後 即時 飛行機로 巴里에 向하야 三十日午前 쥬네브에 到着할 豫定이다 總會議長에 選擧된 境遇에는 그椅子에 就하는것을 受諾할것으로 보인다 總會에 臨할 白耳義의 方針은 如左하다

一、白耳義代表로서는 總會에서 힘써 이니시아티브를 取하는것을 避한다 그리고 制裁撤回에 關해서는 英佛兩國의主張을 支持한다

一、但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伊合事實을 即時 是認하는것은 困難하므로 右는 九月의 總會까지 審議를 延長할것을 主張하겟다

常設國際元老會議
希臘代表가提議
聯盟改造의一案으로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國際法의權威로 有名한 希臘代表 폴리티스氏는 總會開會를 압두고二十九日 國際聯盟改組案을 公表하얏다 右試案에서 폴리티스氏는『常設國際元老會議』를 提唱하고 國際行政에 練達堪能의人材를 各國으로부터 網羅하야國際政局의 指針을 確立할것을主張하엿다 勿論右會議에서 日本米國 獨逸 各國等 聯盟圈外에 잇는大國에도 代表參加를 要請할意向이라고 解釋되는데 此等諸國政府의 參加를 確保할 前提로 制裁에 關한 規定第十六條를 緩和할 方針이라고 보인다

英佛發言阻止에汲汲 에皇帝聯盟出席에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는 聯盟總會席上에서 主席代表로祖國擁護의 熱辯을 吐할 決意를 表明하자 英佛兩國代表를 爲始하야 聯盟擁護의 各國代表는 極度로 當惑하야 伊太利의 感情을 損傷할것을 念慮하고 極力發言阻止를 行하엿스나 頑强히 說得에應하지안코 總會에서 祖國擁護의 熱辯을 吐하시기로되엿다 그런데 皇帝는 純理的立場에서 聯盟各國의 支援을 要請하고 各國代表의 財政的援助下에 西方

에디오피아皇帝 總會出席을通告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는 二十九日 아브놀聯盟事務總長에게 對하야 三十日 聯盟總會에 出席하게 다는 [illegible] 시엇는데 有에 關하야 에디오피아 代表部는 如左히 發表하얏다

하일레·셀라시에 一世는 三十[illegible] 熱辯을 吐하시기로 決定하엿다 皇帝는 目下 [illegible]中이시다

그런데 三十日의 總會는 同日午後五時(日本時間七月一日午前一時)부터 쥬네브市會議事堂에서 開催될豫定이다

典=伊太利따시스트가 羅馬에 入城한지 十四週年이되는이때에 그들은 六月初에 二帝的盛大한 祝典을 장거되엿다 十一週年을 祝賀하는 따시스트靑年黨員의『파레이드』인데 그들은 同時에 에디오피아新帝國建設을祝賀

海峽條約改訂案
英蘇土協定成立?
蘇聯側은依然難色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海峽條約改訂에 關하야 英、蘇、土三國代表間에 이미 協定案이 成立되어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은 即時 本國政府에 請訓하엿는데 蘇聯政府는 이에 對하야 難色이잇는 模樣으로 最後的決定에는 아직 相當한 迂餘曲折을 不免할것으로 豫想되다 그런데 難色이라고하는바는 英國代表가 提示한 軍艦의 海峽通過案으로 要旨는 如左하다고 傳한다

蘇聯海軍은 自由로 海峽을 通過航行할수잇스나 黑海의 海軍力이 六萬噸을 超過할 境遇에는 英國政府는 二萬八千噸以上의 兵力을 黑海에 出動할수잇도록한 (寫眞은 리트비노프氏)

英決意에對한 米國側의見解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國政府가 에스카레라條項援用을 決意하게되엿는데對하야 米國大使館側의 情報를 綜合하면 左와如하다

一、米國政府는 老朽驅逐艦을保有하고 保有量에 對하야 制限을 附하엿는데 英國政府가 에스카레라條項을 援用하는結果 米國政府도 亦是實的으로 超過噸數를保有할수잇슬것이다

一、日本政府는 英國政府와 同樣으로 에스카레라條項의 援用을 潛水艦建造에 着手하리라고 觀測됨으로 倫敦海軍條約에 基한 潛水艦의 制限條項은 根底부터 顚覆될것이다

佛國의總罷業 遂流血事件惹起

【巴里二十九日發同盟】佛國各市의 罷業은 아직鎭靜되지안코 南佛레스、리베리、칸느方面의 景勝地의 호텔에서 從業員罷業이 擴大될 徵兆가잇고 추ー루ー즈市의 總罷業은 二十九日 마츰내 流血事件을 惹起하게되엿다 現在로는 各地를 通하야 罷業總數는 아직 約二十一萬의 多數에 達하고잇다

伊遠征軍 本國에凱旋

【羅馬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二十九日 [illegible] 에디오피아遠征軍의 本國 凱旋을 發表하엿다 [illegible] 如左하다

遠征軍은 [illegible] 에디오피아 領土를 占領하야 領內의 土民도 [illegible] 大部分은 [illegible] 잇다 手記가 [illegible] 遠征軍으로부터 [illegible] 本國에 [illegible]할것이다

政府가 參加를 [illegible] 主力軍의 [illegible] 十四時 로 [illegible] 아마無 [illegible] 하고 그리고 六時에 [illegible]

隴海線鐵路延長에 英佛白共同出資

【天津發電】國際聯盟으로부터派遣된 佛國人왕시氏는 요지음 隴海線延長에 關한 調査를 完了하야 南京政府에 報告하엿는데 右에依하면 隴海線延長工事는 英佛白三國신듸케트의出資로 第一期工事를 西安으로부터 蘭州까지 第二期는 蘭州로부터 新疆省에 至하고 다시 新疆省으로부터 [illegible]鐵道와 連結하야 中央亞細亞交通系統의 大動脈이되게하려는것이다

獨逸의對中政策
日本서括目警戒
中央軍戰術施設、全部獨逸式
獨中借欵成立도重視

【東京發電】今回 獨中兩國間에締結된 一億圓의巨額에 達하는 軍需品借欵密約에 關해서는 아직 外務當局에 詳報는 到達치 안헛스나 今日까지 外務省에 達한 여러가지 情報를 綜合하면 大體右軍需品借欵密約은 事實이라는 判斷을 내릴수잇는터로 獨逸의 極東進出에 對해서는 새삼스러이 驚異의눈으로 바라보고잇다

即 今回의 借欵密約은 先般 訪日한 獨逸經濟使節키프博士一行이 中國에서 活躍한結果라고보는데 獨中兩國의 接近은 單히 이번 借欵契約에 依한獨逸의 對中援助뿐아니라 現在 蔣介石氏가 中國統一을爲하야 取하고잇는 一切의 軍事的 經濟的施設과 手段은 大部分 獨逸의 그것을 模倣한것이며 最近 外務省에 達한 情報에 依하더라도 蔣介石氏가 西南討伐을爲하야 中央軍에 命하고잇는 一切의戰術、施設은 全혀 獨逸流의 것인것이 判明되고 또 此等戰線、施設의萬全을 期하기爲하야 多數의 獨逸人將校、技師를 招聘하고 今後에도 獨逸人顧問의 活躍에 依하야 國家統一을圖할 決意를 蔣介石氏는 굿게가진모양이다。그런데 歐洲大戰後 一時 窒息한것가티 늣겨지던 獨逸人最近의活力은 可驚할만치 旺盛하야 學術技藝、事業에 對한 獨逸人의 熱意는 他의 歐米人의 追隨할수업는 狀態에잇다 따라서 英佛米等의 全面的包圍攻擊으로不少한 困難을 當하고잇는 日本은 今回에 다시 英米佛等을後驅하고잇는 獨逸과 直接 勢力의 接觸을 招來하야 日本現下의 二大外交國策인 東亞政策과 通商政策遂行上 對獨關係를 相當히 考慮하지안흘수업는것이라 하야 外務省은 今日부터 이미右對策硏究를 開始하는同時에 今後의獨逸의 極東進出에는 深甚한警戒를 하기로되엿다

에國公使를 駐伊大使가兼任

【東京電話同盟】에디오피아駐箚高級委員 그라치니元帥는 過般公文으로써 各國外交官의 特權을一切承認치안켓다는旨를 通告하엿스므로 外務省에서는 代理公使로 에디오피아에 赴任케하엿던 淺田俊介氏를 지브티港에 待機케하고 伊太利政府와 折衝中이든바 伊太利의態度가 强硬하야 解決되지안헛다 따라서不得已一時 에디오피아公使의 任務를 伊太利大使에게 兼任케하고 淺田氏를 羅馬에 撤歸시킨後 [illegible] 行하기로 되엿다 그런데 에디오피아는鐵道沿線을爲始하야 各地에 日貨가 跋梁하야 買賣를 獨占하고잇는 實情이 거의 伊太利에 獨占되고잇스므로 當分 山之內書記生으로하여곰 代理公使의 任務를 보게할 方針이다 그리고지부티港에 待機中인 前代理公使鈴木九萬書記官에게 對해서는 三十日 歸國命令을 發하엿다

國民政府、又復
排日貨制를宣布
輸入品檢査登記證制度는 變形된原産國標記制

【上海發電】國民政府는 [illegible] 過般 發表한 [illegible] 登記證許可申請[illegible] 海關告示로써 [illegible] 輸入品目을 中外商에 [illegible]엿다

右에依하면 [illegible]證을 要하[illegible] 絲、酒精、[illegible]하고 그運輸할때의 檢査와 登記及 罰則이모다 極端한것으로 手段은 密輸取締를 表面의 理由로 삼고잇스나 國民政府의 意圖는 數年來 實施不可能에 陷하여잇는 原産國標記制를 變形하야 이機會에 實施한것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日本對中國貿易에 重大影響을 與하는것이라함에 業者에게 衝動을 與하는同時에 大使館當局에서도 이施行에 深히 注意하고잇다 그런데 右는 排日交涉가 濃厚한 이때이므로 國民政府自身이 排日貨의 徹底化에 進出한것이라고 一部에서는 보고잇다。

라듸·상펑·진·日本製酒(各種類)·아리닌染料、乾電池、고무製靴、통조림食料品、釜便、洋紙、貝肉、化粧品、電氣材料、玻璃、石油、重油、고무다이야各種、海産乾物、削性曹達、精糖으로되어 日本品만을 目標로한것이 明白

豐臺事件으로 冀察政府에抗議
日本軍部當局에서

【北平三十日發同盟】二十六日豐臺에서 宋哲元軍兵士가 日本將校를 不法監禁한 事件은 二十九日의 眞相調査에依하야 第二十九軍兵士의 排日的不遜行爲인것이 歷然한바잇서 日本軍當局도 依然 態度를 硬化하야 當初의 內面的處理方針을 버리고 正式으로 冀察政務委員會에 對하야 交涉을 開하고 如斯한 不法兵士의 徹底的取締를 要求하기로 決定하엿다 따라서 天津에잇는 外交委員長陳[illegible] 覺生氏의 來平을 求하야 至十日午後七時 外交委員會에서 會見하고 日本現役將校不法監禁에 對한 嚴重한 抗議를 하는同時에 將來의 保障에 關한 要求를 提出할터이다

夕刊後市況 三十日

大新 七〇三〇 (不變)
鐘新 六九七〇 (一〇不)
東新 [illegible] (一〇低)

英國增艦結果는
條約崩壞에拍車
英國서增艦한다면結局日本도增艦乎
日本海軍當局見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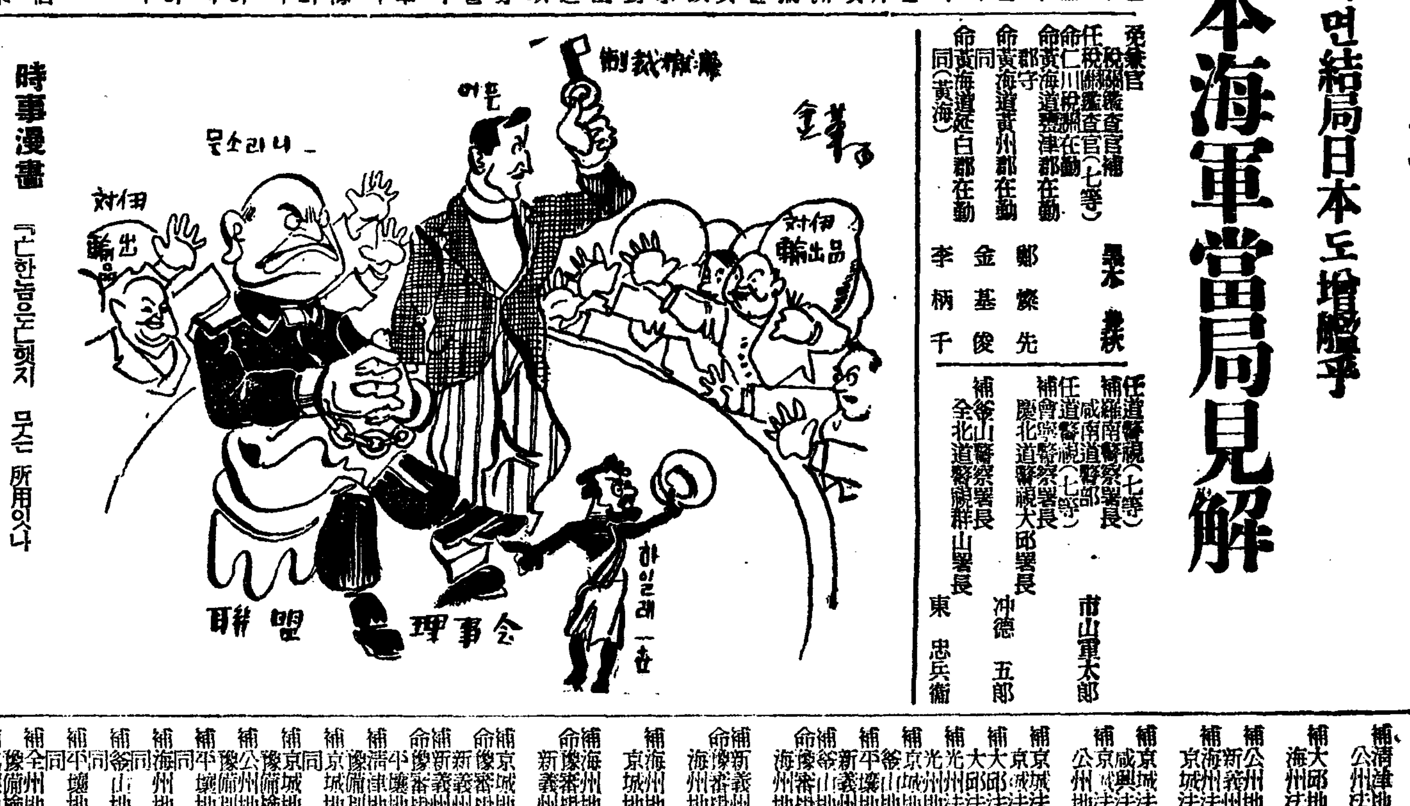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英國政府가 驅逐艦의 四萬噸增艦及 甲級巡洋艦[illegible] 回答을要求한結果 米國政府의 示唆에 基하야 倫敦條約第三篇第二十一條의 에스카레라條項을 援用하기로 決定하고 近近 日米兩國政府에 右通牒을 通告하게되엿다고 傳하는데 海軍當局은 左와如한 見解를 下하고 極히 靜觀的態度를 取하고잇다 卽倫敦條約第三篇 第二十一條에依하야『企圖하는 增艦及 그理由를 特히 明示하야 他의 締約國에 通告하고 右增艦을 行할境遇의 權利를 要求할것』으로 되여잇슴으로 英國政府가 萬若 에스카레라條項을 援用하기로決定하엿다고하면 特히 그理由로 歐洲各國海軍力의 兵力增大를 指摘하야自國의 安全要件에 重大한 影響을 受할것을 明示하여올것이나 英國이 最近非常한 脅威를 感하고잇는것은 明確한 事實이다 日米兩國은 모도이에對하야別로 異議가업고 따라 英國政府는 右覺書에依하야 乙級巡洋艦及 驅逐艦의 增艦權利를 取得하게되고 日米兩國政府도 亦是同艦種을 比例的으로 增艦할權利를 갓게되는데 이結果 今年末로써 失效의 運命에잇는華府 倫敦兩條約은 一步速히 崩壞케되엿다 帝國海軍으로서는軍縮會議脫退當時부터 無條約下에處할 決意를 鞏固히하고잇슴으로如何한事態가發生하드라도 悠悠靜觀 國情國民性에 適應하는經濟的新軍備充實에向하야 國民과한가지 勇往邁進할따름이다

辭令

兼任會計課長 兒島高信
兼任鐵道局理事(二等) 新貝肇
兼任中樞院書記官(二等) 朝鮮史編修會幹事被仰付 山澤和三郎
敕任官으로待遇함 中樞院書記官兼鐵道局理事 上瀧基
依願免本官 警務局屬 畑田研三
任道警視(七等) 補忠北道警察部 補群山警察署長 鮎川榮司
補大邱警察署長 黑澤猪平
補成北道警視高等課 吉利惠美喜
補仁川警察署長 會寧署長
補元山警察署長 八木光喜
同 羅南署長 永田仁助
補咸興警察署長 全北道警視 全州署長
命全北在勤 京畿道警視 治田都市
補昌德宮警察署長 木村與惣吉
京城鍾路署長 熊崎喜一郎
補全州警察署長 中村照臣
仁川署長 阿部武千代
全北警務課 咸興署長

免兼官 任稅關鑑査官(七等) 補仁川稅關在勤 黑木泰秋
命郡守 黃海道甕津郡在勤 鄭燦先
同 黃海道黃州郡在勤 金基俊
命 黃海道延白郡在勤 李柄千
同(黃海)
任道警視(七等) 補羅南警察署長 市山軍太郎
任道警視(七等) 補咸南道警察部 冲德五郎
補會寧警察署長 補慶北道警視大邱署長
補釜山警察署長 全北道警視群山署長 東忠兵衛

依願免本官(各道) 任判事(七等) 同 補京城地方法院在勤 [illegible]
命司法官試補 [illegible]
任判事(七等) 命京城地方法院在勤 [illegible]
任司法官試補 命咸興地方法院在勤 松島[illegible]
任檢事(七等) 命新義州地方法院在勤 [illegible]
任司法官試補 命京城地方法院在勤 伊藤[illegible]
任檢事(七等) 命 [illegible] 地方法院在勤 [illegible]
任檢事(七等) 命釜山地方法院在勤 池田[illegible]
補成興地方法院在勤 佐藤秀[illegible]
補平壤地方法院安州支廳檢事 久保田[illegible]
補大邱地方法院慶州支廳檢事 橋本金五郎
補淸津地方法院城津支廳檢事 米倉東榮三
補公州地方法院大田支廳檢事 青山良三
補海州地方法院沙里院支廳檢事 坂本一郎
補新義州地方法院楚山支廳檢事 近藤春義
補京城地方法院春川支廳檢事 長井省吾
補咸興地方法院北靑支廳檢事 山田敏朗
補京城地方法院開城支廳檢事 閔丙晟
補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檢事 金浴燦
補大邱地方法院金泉支廳檢事 金一龍
補京城地方法院檢事 閔李勳
補新義州地方法院晉州支廳判事 甲斐渡
補釜山地方法院居昌支廳判事 岩山德兵衛
補海州地方法院松禾支廳判事 雲林保
命豫審掛 補海州地方法院沙里院支廳判事 河合初彌
補京城地方法院鐵原支廳判事 小川健治
補新義州地方法宗州支廳判事 中津市五郎
補京城地方法院鐵原支廳判事
命豫審掛 補新義州地方法院定州支廳判事 中津市五郎
補京城地方法院判事 白漢成
補淸津地方法院判事 堀部健二
命豫審掛 補平壤地方法院判事 博田一二
補京城地方法院判事 稻光一夫
補公州地方法院江景支廳檢事 田中伊之助
補平壤地方法院判事 二川武
補海州地方法院判事 大國正夫
補釜山地方法院判事 崔丙杜
補平壤地方法院判事 平石林
補全州地方法院判事 稗田秀雄
補咸興地方法院檢事 崔大敎
補豫備檢事 光州地方法院晉州支廳判事 宮崎保興
補豫備檢事 大邱地方法院判事 卞在成
補全州地方法院檢事 高橋千代作
補豫備判事 釜山地方法院居昌支廳判事 津田雄三郎
補豫備判事 光州地方法院松州支廳判事 此經春隆
補釜山地方法院居昌支廳判事 菊川惇
命退職 平壤地方法院安州支廳檢事 小野四郎
依願免本官



時事漫畫 『근한놈은근』햇지 뭇소 所用잇나 異議업다 速히해라!』

집에 團出現
管內에서세번재
卅日早曉 百餘圓强奪潛跡

…關)파서내 연어 남대문시장(南大門市場)에장 나타난 강도범 보따가지이에 식도를든 세명의 하면서도 아직못 강도단이 침입하야 김히잠들고 는 시내 서대문서 잇는 그집 고용인장원례(張遠 도사건이 돌발하엿 禮)(三)와 주인의종제(從弟) 수 오전세시경에 시내서 죽형(廓竹亨)(二六)을모고장을틀러 (?橫町)일백륙십번지 채소 씨우고 색기로 묶근다음식칼을 수팔문가(畢文司)(三一)라는중국 대고 돈을내라고 협박하야 전 인의집에전괴 주인이약삼십원전 억방안에잇던 현금이백구원팔십 전을빼아서 가지고 유유하게자 취를 감추고말엇다 이급보를접 한 소관서대문서에서는 소천(小 川)사법주임이 게원을 총출동식 혀 범인을 엄탐중이더니 이날밤 에 이르러는 그서 고등계등의 응원은 물론 경찰부의 응원까지 어더철야하야 극력수사중이엇다 한다

마음업는結婚으로 속타든少婦犯罪
處女때愛人戀慕、本夫毒殺未遂
卅日、三年懲役言渡

살인미수 및공문서위조사건 피고 강원도 화천군상서면로동리(華川郡上西面蘆洞里) 리종남(李鍾南)의 안해신금자(申金子)(二十)와 그동리 안자용(安子用)의안해림씨(任氏)(三四)에 관한언도공판은 삼십일오전열시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좌견(佐見)검사관에미리 열리여 재판장으로부터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삼년식의 판결이 내리엿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신금자가 임씨의 소개로 그가열일곱살때에 처녀의몸으로 그동리 최(崔)모라는 청년하고 정을통하야 사랑을 속삭여오든바 금년삼월에 신금자의 부모는 그동리사는 리종남에게로 시집가라고하야 신금자는 부모의명령에 거절할수업서리종남에게 시집을갓스나 원체마음이업는혼인이라 그는 임씨의가르침을바더 리종남을 죽여버린다음 최모하고 가티살생각으로 사월십팔일 리종남이가먹을 김치에 다양재스를 울너엇다가 발각되야 목적도달하지못하고 법정에서게된것이다

蓬萊町돌담문허저 小兒三名重輕傷
그中一名은生命危篤

삼십일 오후 일곱시경에 시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 이백구십이번지엽헤 새로집을 짓느라고 돌담을싸코잇던것이 돌연문허저서 그밋헤서놀고잇던 그동내이백구십이번지의 삼십일호 강두희(姜斗熙)(七)와 그의형 강원희(姜元熙)(九)와 그번지의삼십사호 엄두옥(嚴斗玉)(六)의 세아이가 깔렷는데즉시 부근사람들이 달려가서 아이를 빼여내여 부근동아의원(東亞醫院)에데려다가응급치료중인데 강두희는오른다리가 부러지고 전신에 부상을엇고 까무러친것을 겨우숨만은 돌렷스며 나머지 두아이는 머리와팔다리에 각각전치일주일간의부상을하엿다

京城新義州間 搬送電話完成
一日부터開通

체신국에서는 경성 평양(平壤)사이와 평양、신의주(新義州)사이의 각전화선일회선의 증설공사가작년말에 완성되엿스므로계속하야 이회선에 반송식(搬送式)전화를 증설하야 경성 신의주사이에 반송전화 삼회선을 구성하기로하고 공사중이엿든바 그것이 준공되엿스므로 칠월일일부터 개통하기로 되엿다

이것이 개통됨에 따라서그방면의 통신이 현저히 편리하게 되리라한다

그리고 이전화선은 장래에조선 만주사이 전화의 간선(幹線)으로하야 국제통신련락에 리용하게될터이라한다

至急電話遲延
十二月에開通될듯

중앙전화국에서 금년에급설하는 전화의신청자는 팔천오백의다수에달하엿는데 이에대한 체신국의 배당은 겨우칠백개밧게안되여서 부민의대망에 만족을줄수업게되엿다 그럼으로 그전형에 관하야 매우곤난을 늣기며 신청자의 선령을 여러번채하엿스나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엿다 따라서 그추첨도 느려서 칠월말엽이나 팔월초순까지에는 추첨하게될모양이다 그리고 공사의재료가 완비되지못하야 지금 전화의 개통은 오는십일월하순이나 십이월초순경에나 보게될듯하다한다

海軍機墜落
三名重傷三名不明

【吳電話同盟】 삼십일 오후세시경 좌백해군항공대(佐伯海軍航空隊)의 제십오호중 형비과는 화구심촌(和久深村)부근에 추락대파하야 전직치(畑直治)이등정비병조 평정정치(平井正治)삼등병조 목하(木下)삼등병조등삼명은 중상하고 창목(倉木)이등항공병조 하원(河原) 중위 소림(小林)이등정비병조는 행방불명되엿슴으로 목하수색중이라는뜻이 오진수부(吳鎭守府)에입전되엿다

金廠鑛山鑛主被殺

【通化三十日發同盟】 금창 광산(金廠鑛山)경영자교본정덕(橋本正德)씨는 종업원 이십이명을데리고지난이십구일 오후세시경에 금창광산으로부터 통화에 도라오는도중 통화의 동남칠키로지점 화전자(花甸子)부근에서 약사십명의 로비에 습격을당하야 교본씨이하 기술원다섯사람과경비원 두명은전사하고 두명은부상하엿다 남치되엿다는 급보를밧고 통화에 주둔한 근등(近藤)부대의 기타가 출동하야 추격중이라한다

咸南國境三百里에 鐵城가튼警戒網
國境守備隊의減員對策으로
第一線에警官增員

【咸興】 함남도경찰부에서는 국경수비대감원의 대책으로 제일선의 각경찰서에 삼십명내지사십명의경관을 증원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칠일 제일착으로 이십명을 평지대각경찰서에서 선발하야 국경의 삼경찰에 보내엿다는데 이후도게속하야 파견하리라고한다 그리고 당도한번무긔(繁茂期)에일층엄중한경계를하기위하야 제일선삼경찰서에 망루(望樓) 철조망(鐵條網)성벽(城壁)등을 설치할계획이라고하는데 일로말미암아 삼백여리의 함남도 국경은 철성가튼경계망을 이루게되리라한다

千餘名共產軍 朝鮮侵入計畫

별항과가티 철통성가튼 경비망을느리고잇는반면 이십칠일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 정보를보면 목하무송현삼도하자(撫松縣三道河子)부근에는 그대안에 분거하고잇든 공산군 오(吳)사령 주(周)진(陳)주(朱)사령등이 거느리고잇는 일천여명의 합류부대(合流部隊)가 모히여 밀의를거듭하고잇는중인데 그내용은 번무긔(繁茂期)를당하야 경비가곤난하게된때를타서 합력하야 강안(江岸)지방과 조선내지를 습격하려고하는 계획이아닌가하여 이로인하야 국경각경찰서에서는 비상히경계를하고잇다한다

鎭南浦"日鑛"職工 突然、動搖의氣勢
陳情書에捺印中、綻露被捉
昨年罷業後滿一年에

【鎭南浦支局電話】 작년팔월삼십일에 진남포(鎭南浦)일본제련소(日本製鍊所)직공 삼천여명이 임금인상과 대우개선등 십삼개조의요구를 제출하고 동맹파업을 단행하엿스나 경찰의 엄중한간섭과 회사측의 불양보로 호지부지파업이 해체되고마지 약일년되는금일 또다시대동요의 긔세를보이고잇스니 이번동요의 근인(近因)은 금년오월중순에 그회사의 일본내지인 직공사십여명이 임금인상과 일일공휴제이교대(二交代)제를 삼교대(三交代)로할것등을련서하야 회사측에진 [illegible] 비밀리에 임금을일할이상이나올엿슴으로 이를알게된 조선인직공측에서는 류월이십구일 공작계전과부(工作係電氣部) 직공 김윤필(金允弼)(三四)이하 수명이 임금인상과 사택에 거주하지안는 직공에게 사택료를 지불할것을요구조건으로한 진정서에 날인을바드려 각직공의집을 순회하다가 진남포서에 체포 되엿는데 경찰에서는 만일을념려하야 제련소정문과 시내요소에 다수의 정사복경관을배치한후 엄중한경계망을 느리고잇다한다

大膽한少年竊盜團

【平壤】 이십륙일오전열시삼십분경평양역부근 사정에서 도적놈잡아라하는 소래를 질으면서 달아나는 소년두명을 순찰중이든 평양서원이 체포하여 취조한결과 중화출생(中和出生)서태훈(徐泰勳)(一五)과 고림리(黃林里)김덕수(金德洙)(一七)의두명으로 공모한후 쓰리영업을하고잇는중 이날도 회신에서 어떤손님의 가방을 노리다가 정원에게 발견되자 쫏기우면서 도로혀 도적놈잡으라고 야단을 부린듯것이다 이소년이인조는 이십오일강동으내에서온 과자상 리일선(李一善)(二七)이란이을 습격하고현금백여원을 강탈하여다가 김가든사람들의 주격을바더 버리고다라난것까지 자백햇다한다

未種痘者를嚴罰

【平壤】 평양부내에는 천연두환자가 계속발생하여 평양부민건강선을 여지업시위협하고잇슴으로 [illegible] 게하고잇는데 [illegible] 에서는 방역 [illegible] 멸을 노력하고잇는바 미종두자에대하여 상세한조사를 하고잇는데 무지각으로 [illegible] 사실구명의 [illegible] 종도법위반으로 [illegible] 에처하기로 되엿다

市區擴大正比例로 汚穢物等도激增
舊市內만도不徹底요新市內엔力不及
京城府當局의頭痛

전염병 도서의 루명을벗고위생도시로 면목을고치려는 경성부의 청문제로 두통거리가 되여잇는것은 대소변과 쓰레기등의 오물(汚物)처치이다 그동안 경성부위생과로서는 재법에써서 시중의 오물을 처내인다고는하나 손이밋치지못한다고부민의원성이만햇다 부위생과에서 여러가지로 그대책을 연구케 되여 위선 지난오월일개월간 구구역내 경성부민이 배설하는일반오물을 조사한결과 그추정량(推定量)은 대소변이오만륙천륙백삼십이석에 쓰레기가 이백칠십칠만오천칠백관(貫)이든것이 실제조사의결과는 대소변이 오만칠천사백구십팔석에 쓰레기가 삼백륙십칠만륙천사백여관으로 모다 그량이늘엇다 그중에도 쓰레기는 약일백만관이나 더만타

이가튼상태에잇슴으로 아무리열심히 처내인다고해도 길목마다 쓰레기넘칠것은 의심할여지도업는것이명확히 판명되엿다 그동안 부위생과에서 해온일을보면 종래 마차사십팔대이든것을 업마전에 륙십대로 늘려 가지고 한주일에 한번식돌아가면서처내이어와다는것이나 도저히현상대로는 시중의 오물처치가원만치 못하여 다시방법을 강구치안을수업시되엿다 그래서 오는구월까지에는 어떤방법으로 종래보다는 더나케 오물처치를 하도록 연구중이다 이와동시에 문제되는것은 시내에서 처내인오물을 [illegible] 버리느냐하는것이다 종래대소변은 룡두정(龍頭町)아현정(阿峴町)이촌정(二村町)뚝섬 [illegible] 에 버리기로하야 [illegible] 이업는터이나 쓰 [illegible] 한곳에만 버리어왓는데 장소가 협착하여 다시 장소를택하지안흘수업는형편에잇다 그러고 이외의 신편입구역의사정을보면 농경지대는 사정이다르다해도 시가지로되여잇는 창신정(昌信町)숭인정(崇仁町)아현정(阿峴町)도화정(桃花町)마포(麻浦)등지는 종래대로정부어자를시켜서 오물을 처내는터이나 그것이 역시원만치못하다고 일반의불평이 만흔데 구시내에도 손이못도라가고잇는터이라 신구역에대해서는 더구나손이터안도라가서 아직은 그대로둘모양이다

全京城—懸賞童話大會
大盛況裡에終幕

제사회 전경성 기독청년연합동화대회(第四回全京城基督靑年聯合童話大會)를 신문내면려청년회(新門內勉勵靑年會)주최로 지난 이십구일 삼십일 량일간 동회관내에서 차재명(車載明)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엿는바 참가단체가 열단체나되엿스며 심판은 사계의권위인 전영택(田榮澤)、강현집(姜賢集)、최이권(崔以權)제씨의 심사로 다음과가튼 입상자가잇슨후 우승컵 수여식을 마치고 오후열시반에 화기애애한중에 폐회하엿다한다

一等 三淸洞主日學校 어린羊子 崔 金 善 氏

二等 貞洞主日學校 正直한羊飼 洪 羅 恩 氏

三等 淸凉里○E 價値잇는銅錢세푼 金 榮 勝 氏

國際都市上海에서 五萬圓大金貯蓄
간열핀三姉妹가"딴사ㅣ"노릇
慈母省墓次로歸鄕

이십구일밤열시 오스(?)발에상해에서오는 평안환(平安丸)이국제항인천섭부두(仁川埠頭)에들어오자거긔에는일등선실에서 내려오는 두양장미인이잇섯스니 이들은 지금으로부터사년전인 소화팔년첫여름에 고난의 고국을 뒤에 도라보며 행복의 길을차즐려고 국제도시 상해로 건너가 지금에는 간얄핀 녀자의몸으로 오만원의 큰돈까지 모아 가지고 도라오는 김일선(金一仙)(二七)과 그의동생 옥희(玉熙)또한 일룸은『히로꼬』(廣子)(二?)라는꼿가튼 두자매이엿다 이들은 시내 인사정(仁寺町)백삼십번지의 아호태생으로지금으로부터 십이년전에도라간 그의자모 남씨(南氏)(六?)의 성묘차로온것이라고하니 문제만흔 리태원공동묘지(梨泰院共同墓地)에모서둔 그의자모는 얼마전에벌서 한주먹재로 도라간것을안 이두자매는 다만서로 얼굴만처다보며 지나간날의어머니의추억에잡겨잇스며한줄긔희망조차이저버린그들은 한달후에는 다또시 상해로도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상해는 가운데동생『마리야』(二?)가 홀로떠러저서 형과아우가 빨리도라오기를 기다리고잇다한다 (사진은 우로는형 김일선 좌는 끄레아우옥희)

捕鯨船色丹丸坐礁

【大阪電話同盟】 약협(若狹)으로 체신국에 들어온 전보에 의하면 일본포경회사(日本捕鯨會社) 소속 색단환(色丹丸)은 이십칠일 오전령시 이십오분가량되여 천도렬도(千島列島)신지도(新知島)부근에서 농무때문에좌초되여 선체가 십오도에나 기우러지고 긔관부에는 여섯자남즛하게 침수가되엿스나 인명에는 피해가업는모양이다

식골잇는土地로 서울사람을속여
그럴듯한수단으로契約金詐取
멀정한土地詐欺漢

함북부령군(富寧郡)출생 현재시내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칠십사번지에 거주하고잇는 신괴송(辛桂松)(四?)은 수일전부터사기 횡령혐의로 본정서에인치되여 취조를밧는중이라는데 그는 함북명천군 아간면 로송동(咸北明川郡阿間面老松洞)에 시가약이삼백원의 토지·약오만평을소유하고잇는것을 긔화로하야 경성시내로 도라다니면서 대단히유망한 토지라하고 속여가지고 시내화천정(和泉町)십일번지 조하연(趙河衍)(五?)에게서 사천원을 사취하엿다 그리고 그는이금액으로 강풀리이니 근저당권설정(根抵當權設定)은 필요가업다고 속이고 그토지의 권리서(權利書)만 그를 주엇다 는데 수일후 재차 차저와서 토지가다른곳으로 매매되는듯하나 권리서를 잠간만 빌려달라하야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매하는등의 교묘한수단으로 창동(倉洞)여모(余某)에게서도 계약금을사취하엿고 또는명천(明川)자긔토지의근방에잇는 토지소유자 칠십팔명에게서 갑비싸게소개한다고하야 매매서류를 작성하야시내신설정(新設町)김모(金某)에게서 그토지매매운동비로 일만이천원을 사취하야 그를거이 파산상태에 빠지게하는등 교묘한사취수단으로 법을악용하야 전긔와가티 사취하여다는데 그서에서는 그에대한 물적증거를수집하는일편 계속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조반전

▲아모실속도 차릴줄 모르는 조선사람에게 가진 못된 바람은먼저불어차는것이 이제 처음보는풍이아니지만 ▲그중에도 『류선형』(流線型)이니뭐이니하고 요사이 들떠드는 류선형병은 점점 조선사람의빈약한 살림사리의 골수를 기피 좀 먹어드러가고 잇는현상 ▲서울에는 이소위『류선형전염병』이 퍼저 알고도 몰을 괴상야릇한 작난감 아니절두 장식품이 류행하고잇스니 ▲그것은 서울의 거리를 거러본사람은 다눈의여보앗스려니와 어느상첩머리에나 울긋불긋하고 엇가락모양으로 배배 꼬인 어색한 생철쪼각을 처하끄헤 고무풍선리듯 다려노코 ▲뺑뺑! 뺑뺑뺑!도르람이 처럼 바람에 도라가는 꼴을 가지고 지나가는사람들의 시선을 끄으려당기는것이 즉 그것이란말이지 ▲이일흠도 출처도모를괴물을누가 어대서수입해는지? 모르겟스되 ▲이놈의 한개갑시 최저 팔전으로 최고십오전이나한다니 생철쪼각갑치고는 지독스럽게 비싸거든! ▲이놈을 큰상점이나 적은 구멍가개가 할것업시열개、스무개 안단집이업스니 대체 알고도 모를도회지상민들의 야비한 랑고(金쳬)이야▲시각(視覺)을어지럽게 하는점으로 해가잇스면잇지 리라고는 띠천한푼어치업는 이괴물의 수명도 연전에 한참 긔세를 뽑내든『요-요ㅣ』를처럼짧을것은 벌서 정해는일이야!

運動競技
女子個人庭球戰
京女高遂優勝
一般部엔朴、宋組

◇寫眞은 左로부터 第一部優勝 韓貞順、李春卿、第二部優勝 宋媛模、朴順媛、諸孃

第十八回全朝鮮女子庭球選手權大會一般部와 女學生決勝戰은 三十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黃金町一丁目殖銀코-트에서 續續擧行되바 一般部에 女師의 朴順媛 宋媛模組가 優勝하엿고 女學生部決勝戰은아기자기한 熱戰끄테 京城女高普의 韓貞順、李春卿組가 榮譽의錦權을獲得하엿다 이리하야 女高普는 團體戰과아울러 個人戰에도 制覇하야 完全히 庭球의 王座를차지하엿다

◇第二部(一般)

【準決勝】

○女師(金大壬 李貞淑)4…0 女(白 藤)×

○女師(朴順媛 宋媛模)4…1 女師(金惠慶 嚴敬源)×

【決勝戰】

×女師(金大壬 李貞淑)(4…1、2…4、4…0、8…10、4…6、6…4、1…4)女師(朴順媛 宋媛模)○

◇第一部(女學生)

○高女(韓貞順 李春卿)4…2 女(古賀 神保)×(0…4、5…3、4…0、11…9、0…4、4…1)

延專主催의 中等野球
四팀의對陣決定

延禧專門學校主催의第六回京畿道內中等學校野球大會는 七月二、三、四의三日間 延專球場에서行할터인바 이에出場할 團體는昨年의優勝校徽文高普를 비롯하야 中央高普 大東商業 善隣商業等四팀인데 對陣은다음과가티抽籤決定되엿다

◇第一日(七月二日午後四時入場式)

▲徽文對中央第一回戰

◇第二日(三日午後四時卅分)

▲善隣對大東第一回戰

◇第三日(四日午後二時決勝戰)

伯林올림픽目標로 陸上王國米國의威勢

【뉴-욕廿八日發】 올림픽大會를 압두고 米國陸上競技界는 緊張味를 띄우고잇는데 特히 七月三、四兩日『뿌린스톤』大學校庭에서 열릴A·A·U全米陸上選手權大會와 十一、十二兩日『란드올스』島『스타디엄』에서 열릴 올림픽 最終選拔 大會의 結果는伯林 올림픽大會에서의 米國陸上陣의 活躍을 左右하는 것으로 자못注目을 이끌고 잇다 今年勝頭부터 今日까지의 米國陸上記錄을 回顧하면 實로陸上의王者米國에서만 볼수잇는 數多의 新記錄을 지고잇서 其威力을 遺憾업시 發揮하고잇다그 慣例를 들면 다음과가튼 十六種目記錄은『헤랄드·트리뷴』運動部調査에 依한各地大會의 公認記錄으로 其中百米、二百米 四百米 高障碍 投圓盤에는 世界記錄을 更新하엿다 압흐로 擧行될兩大會에는 多數의 新記錄을作成할것으로 期待된다

(括弧內는 世界公認記錄)

百米(10秒3)10秒2오웬스▲二百米(20秒6)20秒5오웬스、와렌다-▲四百米(46秒2)46秒1헐리암스▲八百米(1分49秒8)1分50秒이-스트엔▲千五百米(3分43秒8)3分50秒5엔스케▲五千米(14分17秒)14分52秒뿌라이드▲一萬米(30分6秒2)32分25秒2웬나▲高障碍(14秒2)14秒1다운스▲四百米障碍(50秒6)53秒3하-데인▲投砲丸(17米40)16米43토-란스▲投圓盤(52米42)51米73카-펜터▲棒高跳(4米37)4米36하라-▲走高跳(2米06)2米05마-레이▲走幅跳(7米98)7米89오웬스▲投槍(57米77)53米98로-▲投槌(76米10)65米95레라-

마라손廢止論
芬蘭에서率先提唱

【伯林廿七日發同盟】 올림픽을자돌고 目下第一線을 集中하고잇는것은 第十二回開催地가 어느곳으로 落着되느냐?」 問題인데 그다음으로 競技者及競技團을 사이에 큰話題를提供하고잇는것은 올림픽競技種目中에서가장 古代로 부터크게 人氣를이끌고 잇는 마라손廢止論을主張하고잇는것이다 過去의 國際올림픽委員會 에서도 一時問題化하엿든 이競技에對하야 從來長距離界의有名한런너-를輩出한 芬蘭國이率先하야 廢止說를吐하고잇는데 七月卅、卅一日의 兩日間伯林에서 開催되는國際올림픽委員會에 此案을提出할터이라한다 그리고 國際陸上競技聯盟役員으로 有名한 瑞典의뿌ㅣ에룬드-氏도 이를支持하고잇다

今回의 마라손廢止說의論據는 마라손의 距離四十二키로一九五는 人類의體力을酷使한다는點이라고생각되나 第一回大會以來實로四十年의 歷史를 가젓고 이에딸아 그距離는 마라손…아테네間의 距離를 實測한結果 果然로소所得한 種目인만큼 비廢止說이 通過될는지 큰疑問이다 그런데芬蘭은 廢止說뿐만을强調한것이아니라 其代身으로二萬米 또는二萬五千米를 새로이加入한다는것이다

世界올림픽 籠球展望(上)
普專籠球部 李文鎬

오는八月八日부터 伯林라이히스포-츠場에서 擧行되는 世界올림픽籠球戰에 出戰코저 우리三代表 李、廉、張三君은 지난二十二日새벽에 京城을 通過하는 올림픽 特別列車로 壯途에올랏다 籠球는 처음參加하는 競技일뿐만아니라 이競技自體가 올림픽에 正式採用된 第一回의競技會인만큼 그豫想도 쉬운일이라고는 볼수업다 그러나 日本팀이 다른팀에比하야 多少有利하다고 보이는점은 開催地獨逸을爲始하야 이에가까운 歐洲諸國이 이競技를 誠意잇게 科學的競技로서 採用한것이 比較的새로움에는것과 一九一四年으로부터 同二十四年에 이르기까지 歐洲는 때마침 世界大戰에 直面하야 그의硏究의 進步와 普及의 程度에잇서서 或亞細亞諸國보다 뒤떠러지지 안헛는가하는感이 잇는點등을 들수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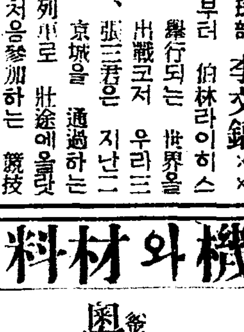
今回올림픽籠球의展望과 日本軍의地位를들때에 爲先問題가되는것은 日本籠球界의 現在의力量과 世界各國의力量과의 比較이다 이競技의母國인 米國은이를日本팀의 敵手라고하느니보다 世界의 指導者의地位에 잇다고말하는것이 適當할것이다 올림픽籠球에 日本팀이 有望하다는것은엇데印戰까지가서 어떠케싸우겟는가?하는 問題일것으로 後에優勝하느냐 못하느냐하는問題에잇다고는볼수업다 日本팀이 히 有望하다고는볼수업다 日本이는메즈아맨트·스포-츠가 아닌만큼力量의 比較는極히 困難하나 現在各大陸마다 競技會를 基準로考察하야본다면 FIB聯下에잇는歐洲에서는 伊國『라트비아』가斷然 頭角을낫타내이고잇서다

金 銀 白 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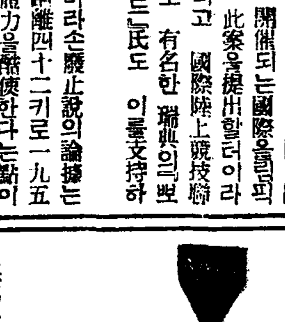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電話下谷(83) 九五九〇番 二九九〇番 五八二〇番 八八〇〇番
振替東京六八八番
受信略號 (クフシイウケウト)
出張所 平壤府旭町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園樂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天滿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三防白水館
夏節에唯一한避暑地三防藥水浦를차저靜養하시려오시는男女顧客을爲하야旅館設備를完全淨潔케하고低廉한料金으로家族的으로優待코저하오니自宅과가튼氣分으로꼭차저주시기를바라나이다

寫眞機와材料

釜山大廳町 奧山寫眞機店
電話二四三〇 振替釜山八五八
(カタログ定價表進呈)

第一劇場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三番
西部活劇 鐵拳兒
米國FBO社特作品無聲 로바드데레시氏監督
主演…坂本武氏 大日方傳氏 伏見信子孃
現代劇 出來ごころ(出來心)
監督…小津安二郎氏
松竹蒲田現代劇部藝術作品特作品

ミノル式製粉機
穀類의製粉은무엇이든지自由로됩니다

其他小型重油、輕油、石油發動機、籾摺機、精米麥機、揚水ポンプ、稻麥脫穀機
在庫豐富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府大倉町四丁目
電話長六五五六番
振替釜山三四四七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一二五四番)
公開六月廿七日晝間부터三日間大
三大映畵鑑賞週間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續映
夜間八時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유나이레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래오막카레이氏監督
大喜劇 칸다에鬪牛師
喜劇王에데이캔타氏大熱演
二十七日初日七月二日迄新作封切
待望の豪華プロ 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名匠キング·ヴイダー監督不朽の傑作
薔薇はなぜ紅い
名花マーガレット·サラヴァン、ウォーター·コンノリー主演南北戰爭時代の或る農場の持主一家のバックに、移り行く世相と變り行く人人の心境をキング·ヴイダー一流の氣取らないジックリとした形式のうちに語る戰ひの抒情詩
P·C·L映畵撮影所撮影記念作品
池寬原作·矢倉茂雄監督
オールトーキー 處女花園
堤眞佐子·中野英治·山縣直代他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わが胸は高鳴る
フランク·タットル監督ビング·クロスビー、キティ·カーライル
晝夜三回入替ナシ大五〇學三〇
次週封切P·C·L兒いもうとコロムビア映畵オペラハット

王ヒ代用藥
スパスミン 中毒
ボリカイン
ペチナール 治療
モルダイン
大田順天醫院

무엇때문에蛔虫이무서운가
蛔虫이 人體에寄生되면 營養分을 橫取하야 成長되는故로 貧弱해지고 [illegible] 生命을 危險케하는일도 만흠으로 小兒는 반드시「산독니넬과자」(珊篤尼涅菓子)를먹여서 蛔虫을驅除케하십시오 [illegible] 野菜漬物、其他食物에부터서 人體의內部에 드러가 [illegible] 毎日「산독니넬과자」(珊篤尼涅菓子)[illegible]「산독니넬과자」는數十年來의經驗과實用을가진 [illegible]
大阪天王寺ノ虫下シ
珊篤尼涅菓子 サントニネカシ
산독니넬과자
(岩崎大海堂セメン菓子)
類似品잇으니珊篤에注意하시압

奪取한犯人

【仁川】부천군 대부면북리(富川郡大阜面北里) 리해우(李海雨)는 금번 만주시찰갓다오는길에 지난이십구일 시내 룡강정(龍岡町) 중앙(中央)여관에 투숙하얏는바 동여관에 투숙하고잇든 성기준(成基俊)(二六)(전과이범)이가 현금 팔백팔십사원과 의복양화까지절취도주하얏슴으로 인천서에서는 방금각지에 수배엄탐중이라한다

七月以後換節期가 傳染病의全盛期

首位는染病、赤痢가第二位 主要病因은房外起居

여름철이 기퍼가면 갈수록시민의생명을 위협하는것은 여러가지 전렴병이 횡행하며 그중에서도 더욱심한것은 장질부사적리(赤痢)등의 소화긔계통(消化器系統)의 전렴병인것은 빈대벼룩등에 대기다못해 밧게서 차게자는 습관이만흔 우리들의특히 조심하여야 할바이다 이제동대문서관내(東大門署管內)에서 작년과금년에 발생한 전긔전렴병통게를보건대 칠팔구월이모다겨증하여잇는것은 장차닥처오는시긔가 얼마나 전렴병의 창궐시긔임을보여주는것이며 더욱장질부사에잇서서는 시월이 오십명으로작년중의 최고긔록이 되여잇는것은 이달이 여름과가을이 박귀우는 환절긔후(換節氣候)에 의한것으로 일반시민의 철저한주의를 요구하고잇다 이제참고로통게를 들면아래와갓다

月別	腸窒扶斯 昭和十年	腸窒扶斯 昭和十一年	赤痢 昭和十年	赤痢 昭和十一年
一月	二	五	一	一
二月	六	四	一	一
三月	一	二	一	一
四月	三	六	一	一
五月	五	二三	一	一
六月	一〇	二	一一	二
七月	二三	?	一〇	?
八月	三八	?	三三	?
九月	二五	?	三三	?
十月	五〇	?	五	?
十一月	三七	?	一	?
十二月	七	?	三	?
合計	二〇七	?	五七	?

찻는이업는無主塚 梨泰院에三萬餘

겨우五千餘基만移葬手續할뿐 十月까지에는全部處置

【京南】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구버보는 리태원공동묘지(梨泰院共同墓地)에는 사만삼천여개의 백골이무처잇서 마치한세긔전의 지하경성이나 이루고잇는감을주는데 이는경성부에서 주택지로 설정하고저 작년사월부터 무덤의유연자(有緣者)들에게 금년류월말일까지 발굴신청을하라고수차통지를하엿섯스나 마감할금월말일까지 발굴해갈분묘수는 불과오천여긔(基)에 지나지안는다한다 나머지 삼만팔천여긔는 부득이 무연분묘(無緣墳墓)로 인정하고 시외신사리(新沙里)공동묘지로오는시월말을 긔한으로하고 전부이장하리라한다

老婆縊首自殺

家庭不和에基因

【開城】요지음 개성에는 사흘이머다하고 자살사건이 빈번하야 일반부민의 마음을 어둡게한다。 부내궁정(府內宮町)일일오번지 박창성(朴昌成)(二七)(假名)의 친모 왕씨(王氏)(六一)는 지난이십륙일 밤새로 두시경집안사람이 깁히잠든틈을타서 자긔집 대청들보에 목을매고 죽을려고 고민하는것을 건는방에서 자든 며누리가 발견하고 즉시 목을풀어노흔한편 대동병원(大同病院)의의사를 청하야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드듸여 그는 절명하고말엇다는데자살한원인을 탐문한바에의하면 평소에 가정불화로지내든중 그리되엿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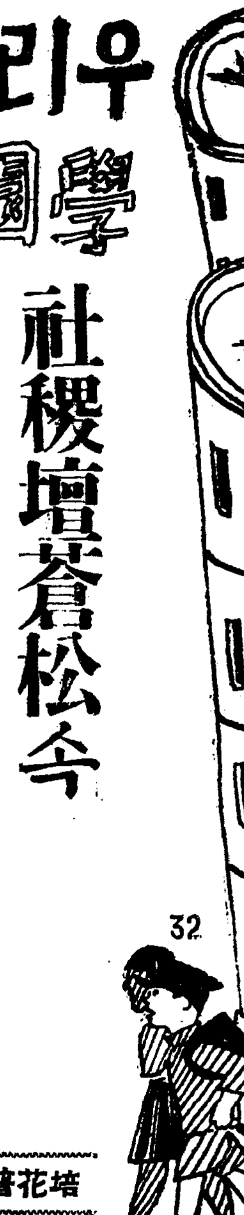
妙齡洋裝美人 進行列車에投身

【京南】가랑비가나리는 이십팔일밤 열한시 십분경 경성역발 청진행(淸津行) 제오백삼호렬차가 룡산철도국『그라운드』압흘지날때 별안간 어떠한사람한명이 뛰여들어 급히 정거를 하엿스나 미처 못하고 고만치엿는데 그는나희 이십이삼세 가량되여 보이는 조선인 녀자로서 회양복에 구두를 신은것으로보아 신녀성인듯 하다는데 요행 이생명에는 관계업시보이나 두개골이 으서저서 전신은 피투성이가되여 혼도되엿다 즉시룡산철도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수당을하나 원인과성명은 아즉것 혼수상태에잇서서 알수업다한다

霖雨期를迫頭 腸疾扶斯猖獗

【仁川】림우기(霖雨期)를 압두고장질부사의창궐= 수일전 도산정(桃山町)근방에 장질부사환자두명을 발견한 인천서에서는 그즉시 방역에 로력하든중 지난이십칠일 오후한시경 시내송현리(松峴里)팔십오번지의팔호 공남국(孔南國)의 장녀룡련(龍蓮)(×)과 남흥식(南興植)의 오남 영희(永熙)(×)두명의장질부사환자를 발견하야 인천서 위생계에서는 아연실색하야 인천은 경성의관문이니만큼 전시를 통하야 예방주사를 단행하리라는대 일반부민도 만흔주의를하여야할것이다

우리아들딸 學園이



32

培花普校篇

社稷壇蒼松속 別有天地배움의樂園

―培花女高와는姉妹校로成長― 貞淑은이學園의眼睛

일홈이그자가 본한울창하야 소개한바잇는 매동공립보통학교(梅洞公立普通學校)의바로 뒤에잇는 배화녀자보통학교(培花女子普通學校)를차저다 붉은벽돌로 지은 양관이 깨끗이비에씻겨잇고 흰 전체와잘조화되여 지극히 청초한늣김을준다 사직단(社稷壇)부근에지지안흘리만치 여과 저과 하날을찌를듯한 큰나무들이 수업시도에서잇고 수삼백년동나무그늘은 뜨거운 볏아래서 뛰놀든그들의안식처가될것이다 울창한수목에싸혀 이가지에서저가지로 주고밧는 산새들의노래를 벗삼으며 배화권만의 꼿바를차저드는 나븨와함께 춤추며 평화그속에서 배월가리 배움의 길을 닷고잇든 이곳아가씨들의 행복은소학교아동으로서 바랄수잇는 최고급의 하나일것이다 녀학교 특유의 안옥한분위긔속에서 무럭무럭자라고잇는 이곳아가씨들은 종교의영향으로 그럼지몰라 리、정숙(貞淑)하여보인다 이배화녀자보통학교는 배화녀자고등보통학교와 자매계통학교로다음에 게재된 두학교공동의 배화교가는 이학교의 정신을표현하는것이라고할수잇다

一、필운대에 새벽노피
우는종소리
주의딸들 깨어나니
우리배화라
배화배화
우리배화

우리우리배화
은혜은혜
주의길로 잇끄신은혜
사랑사랑 품어기르는사랑
일생찬양하리
아ㅣ배화야

二、삼각산에 타오르는
붉은구름은
불길가리 덥고맑은
우리맘이라

三、주의비채 차힌볼이
바슬발하니
어둔세상 비최입이
우리뜻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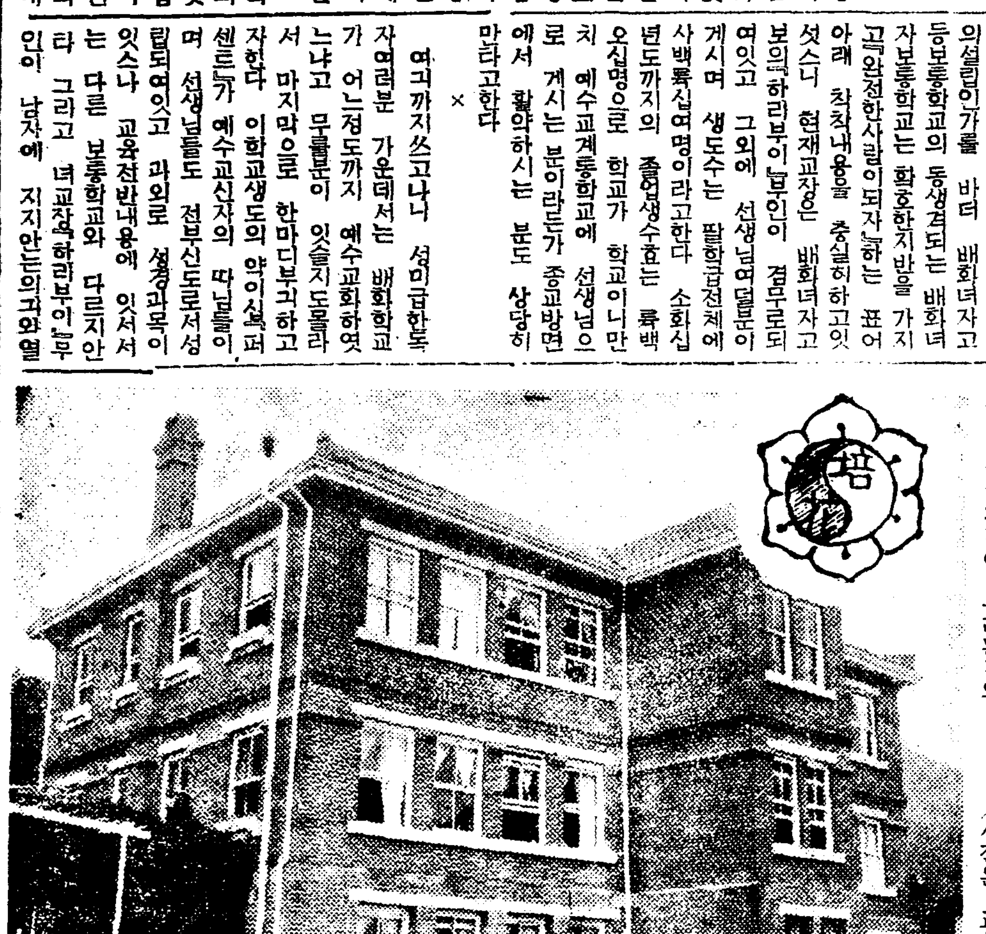
四、큰희망과 큰힘으로
배우고닷고
어린기쁨 뛰고놀고
노래부르자

지금으로부터삼십구년전 명치삼십일년시월이일 미국남감리교 녀선교사『캠벨』부인이 지금내자정(內資町)칠십오번지에다가 사숙을열고 팔구세의소녀 다섯사람을 모집한후 두분선생님과 힘을가리하여 주로 한글과 한문을 가라처가며 이땅의딸들을 길러내고잇섯스니 이것이 바로오늘날의 대배화녀학교의 탄생이엿섯다 그후 명치삼십삼년십이월이일에 한국학부대신의인가를어더 학교의일홈을 배화학당이라고 부르게되엿스니 미국선교회의보조로 일취월장하는교세는 우리들의긔대에 어그러지지안코 매년수만흔 어진어머니를우리사회에보내고잇섯다

명치사십이년사월에 배화녀학교라고 개칭하게되니 사범재의 중학과와소학과를 설치하게되엿다 나날이 느러가는권솔은 큰집을요구하게되고 그결과 대정사년일월오일에 루하정(樓下町)현교지에 새집을착만하엿다 분투와고난의십년은 꿈속에지나가고 대정십년 꼿피는봄에 녀선교사『하리부인』의 명의로 조선총독부의설립인가를 바더 배화녀자고등보통학교는 확호한지반을 가지고『완전한사람이되자』하는 표어아래 착착내용을 충실히하고잇섯스니 현재교장은 배화녀자고보의『하리부인』이 겸무로되여잇고 그외에 선생님여덟분이게시며 생도수는 팔학급전체에 사백륙십여명이라고한다 소화십년도까지의 졸업생수효는 륙백오십명으로 학교가 학교이니만치 예수교계통학교에 선생님으로 게시는분이라든가 종교방면에서 활약하시는 분도 상당히만타고한다

×

여긔까지쓰고나니 섭미급한독자여러분 가운데서는 배화학교가 어느정도까지 예수교화하엿느냐고 무를분이 잇슬지도몰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부귀하고자한다 이학교생도의 약이십퍼센트가 예수교신자의 따님들이며 선생님들도 전부신도로서성립되여잇고 과외로 성경과목이잇스나 교육전반내용에 잇서서는 다른 보통학교와 다르지안타 그리고 녀교장『하리부인』이 남자에 지지안는의긔와열성으로 이 두배화녀학교를 경영하여 나가는점에 우리는경의를 표하여야할것이다 (사진은 교사와휘장)



東部管內의町會 準備員들決定

町會는廿四個區로

지난 사월일일을 긔하야 행정구역의 대확장을단행한 경성부의 살림사리가 잘되고 못되는것은 부당국자(府當局者)의시정방침(施政方針)과 실행력량(實行力量)여하에 잇는것은 다시 말할것도업는바이나 이것을다시 각동리단위로 볼때에는 부민과 부당국과의 련락에적지안흔 역할을하고잇는 정회(町會)의존재도 결코소홀히볼수업는상태로 정회설치문제도 각방면에주의를 끌엇다 그동안 신편입부역(新編入府域)의 각동리에서 토의를 거듭하고잇든 동부출장소(東部出張所)에서는장차 관내에 설치될 이십사개정회에 대하야 다음과가티 결정하엿다

◀敦岩町(敦岩町一圓) 韓聖熙 國友尙謙 徐載淳
◀新設町(新設町一圓) 尹泰英 岡野庄六 朴熙道
◀龍頭町(龍頭町一圓) 金相翊 林貞相 唐澤侑衞
◀安岩町(安岩町一圓) 吳奎泳 柳海昌 安元淳
◀鍾岩町(鍾岩町一圓) 鄭泰植 李克魯
◀祭基町(祭基町一圓) 許炳均 李濟鶴 李載正
◀淸凉里町(淸凉里町一圓) 李哲和 李昌業 木原芳太郞
◀回基町(回基町一圓) 安鍚煥 川上文次 鄭衞基
◀徽慶町(徽慶町一圓) 李寓敬 朴晴秉 濱田忠次
◀里門町(里門町一圓) 金彦模 金在鎬 金仁壽
◀典農町(典農町一圓) 金日成 新井隆三郞 李注能
◀踏十里町(踏十里町一圓) 柳時彦 金鎭九 崔命福
◀沙斤町(沙斤町一圓) 李景于
◀馬場町(馬場町一圓) 洪淳七 黃哲 千[illegible]
◀中[illegible]町 金正國 矢野源市 尹
◀杏堂町(杏堂町一圓) 朴英根 申泰憲 長山正利
◀鷹峰町(鷹峰町一圓) 李慶來 金永善 白完成
◀金湖町(金湖町一圓) 朴基煥 全鳳天 金永基
◀下往十里町(下往十里町一圓) 李義善 崔光哲 稻垣次三郞
◀上往十里町(上往十里町一圓) 金光英 李敎鉉 朴勝宇 金鼎鎭 孫鐘璧
◀新堂町第一區(新堂町警察官駐在所管轄區域內淸溪川支流의西側一圓) 末田新松 加瀨虎輔 諸戶繁藏 平田豊藏 徐丙模
◀新堂町第二區(櫻ヶ丘警察官駐在所管轄區域의內淸溪川支流의西側一圓) 水田梅 平錦木林次 緒方眠治 方季煥 伊藤幸圭
◀新堂町第三區(櫻ヶ丘警察官駐在所管轄區域의內淸溪川支流의東側一圓) 石鳳衛 岡戶富治
◀新堂町第四區(新堂町警察官駐在所管轄區域의內淸溪川支流의東側一圓) 鈴木金太郞 李慶 來 金注洙
◀玉水町(玉水町一圓) 金聲淸 韓慶鵬 崔舜律

『健康데이』까지兼한 開城商工聯合大運動

연께끄을광고의장변장행렬 七月五日、大會役員도決定

【開城】긔보=전개성상공련합대운동회(全開城商工聯合大運動會)는 오는칠월오일에 공설『그라운드』에서 거행한다함은 간단히소개한바어니와 이날은 특히『개성상공업자건강데이』로 정해가지고 상점은 전부 칠시를할것이며 순전한 상공긔관 이십여단체가 단합하야 남대문서부터 광고의장(廣告意匠)변장행렬(變裝行列)등으로 위선 시민의 인끼를 모을것인데 당일역원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金正浩 朴鳳鎭 金日永 金鎭元 金在鉉 金奎昇 金明善 朴二鉉 金梃泰 馬駿圭 孫谷煥 金煥羲 禹哲熙 李英煥 黃申顯 金奎晃 金世煥 朴聖圭 金在淸 梁東植 趙光榮 林啓鎬 馬舜夏 崔光鎭 李晧永 孫英植 崔應源 金泰榮 金世鍾 林慶根 黃村鳳 黃基正 金弘植 安東炎 孔鎭恒 金在瑞 金鶴炯 高演承 崔圭淳 尹明洙 秦豪變 玄鎭大 金秀吉 盧秉駿 金在敎 金龍吉 孫洪설 金圭璋 朴尙彦 林起祖 孔聖集 許眞 張慶鎭 李昌永 金鍾嚴 金慶龍 朱聖哲 金根泰 河順杭 李晩榮 金顯弘 孟元永 徐德均 金鎭亨 金俊炯 許鏞 金秀天 高柄模 金鍾炯 李璟植 宋泰浩 李會浣 各少年軍

銷夏人氣를集中할 延專音樂團演奏會

三日仁川公會堂에서

【仁川】조선 음악계에 가장큰『센세이슌』을 준 본보주최 전조선음악콩쿨대회의수상자 문학준(文學準)리인범(李仁範)양군을 비롯하야 사십여명의 악사를망라한 연전음악단이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오는삼일오후여덟시부터 공회당에서 연주회를 개최키로 되엿는데 특히이번은 일반적으로 음악을 보급식히고자 대중료금으로 회비삼십전을 밧기로되엿다 더욱히 당일은 리전(梨專)교수 채선엽(蔡善葉)녀사와 박경호(朴慶浩)『빠ㅣ커』부인등 사계의 명사가 총출동하야 근래에 보기드므는음악의『파라다이스』를 일울것이 예상된다

永登浦體育會主催 第三回畿湖蹴球大會

七月廿五日부터三日間

【永登浦】영등포체육회(永登浦體育會)주최와 본보영등포지국후원의 제삼회 긔호축구대회(畿湖蹴球大會)는 재작년제일회를 개최한후 해마다 변함업시 조선체육장려에 만흔공헌을하고잇는터로 해마다경성(京城)을 중심으로긔호일대의 이십오개단체가 참가하야 대성황리에 원만히 진행되야 시내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가 이번제삼회를 련속우승하엿다 남대문자동차학교로서는 최후의 영예를 닷투는경전이만치 경긔는 제일이회에비하야 더한층 긴장미를 보이리라고 벌서부터 일대접전이 긔대되는중인데 목하주최자측과 후원측에서는 그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그런데 대회긔일은 오는칠월 이십오일부터 삼일간이라고한다

警察署長異動

京畿道警察部 二瓶一
任道警視(七等) 補昌德宮警察署長 松岡修三
(龍山)道警視 補京城鍾路警察署長 高橋金明
(釜山)同 補京城龍山警察署長 三輪和三郞
(元山)同 吳世昇
任郡守(七等) 補咸鏡北道在勤會命
(黃海警務)道警視 補黃海道海州郡在勤會命 治田都市
(昌德宮)同 補全州警察署長 木村奥吉
(京城鍾路)同 熊崎實一郞
(仁川)同 中村照巳
(全北警務)同 河崎武千代
(咸興)同 依願免本官(各通)

二重三重의天災로 廣州麥作全滅狀態

冬期엔酷寒、春期엔旱魃、收穫期엔降雨 春窮期의食糧이問題

【京南】지난겨울의 한발에원인한 광주군(廣州郡)일대의 맥작은전멸상태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수확긔인금일에와서 광주군당국자조사에 의하건대 맥작총면적중 대맥 삼천칠백구십정보 소맥 구백팔십일정보 기타 삼백칠정보 전부오천일백사십이정보중구할이 전부말려죽어 전멸상태를전하고잇다한다 더욱이 금년도 맥작은 례년보다도 보리알이익기도전에 미리말려서 결실이되지안는데다가 설상가상격으로한발조차 혹독하게계속되고 또한 수확할 근일에와서는 비까지 나리여 석어저서그를 나무대신으로때버리는등 피해참상은 말할수업다한다 이때문에 군내세민들의 춘궁긔의 량식문제는 극히절박한상태라한다

開城의煙草年消費額으로 普校셋곳은經營

昨年一年中四萬二千圓이增加 年額三十三萬餘圓

【開城】담배는 젹대조인사람말도잇거니와 연초는 점점대중화되여가는이때 담배자체가 아편가튼 매력을가지고잇서서 애연중독자를 점점늘게할도 사실이다 그러면 개성은 일년간 연기속에살어진돈은 얼마나되며 재작년보다 작년도의 매상고는얼마나 증가되엿슬가? 잠간 연초전매국 개성출장소장부를 삶혀보기로한다。동출장소에서 분배해주는 소매상은 현재 삼백십구인이라는바 개성시내만 이백개소가되는데 소화구년・파십년도 매상고를 비교해보면

▲九年度 二九二、九八六圓
▲十年度 三三五、八九二圓

이라한다 작년도가 사만이천구백륙원의 엄청난증가를보인중 개성부내에국한한 증가액이 태반으로 삼만사천팔백팔십이원이라한다。이가티 막대한 금액을사회적으로 생각할때엔 능히 소학교셋은 설립할수잇는비용이며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개성오만인구에 사원식이나 분배될수잇는금액에 해당한다 그런데그중제일만히팔리는 담배가『피죤』『마ㅣ코』라는바 『마ㅣ코』 九七、二〇四圓 『피ㅣ죤』 六五、一〇八圓으로서 말하자면『마ㅣ코』세갑팔릴때 『피죤』은 한갑팔리는셈이라한다

惠化町會婦人映畫會

시내 혜화정회(惠化町會)에서는 가정부인을위하야 삼십일저녁일곱시반부터 경성부 사회과(京城府社會課)로부터 강사와활동사진반을 초빙하야 혜화공보교정(惠化公普校庭)에서 강연과활동사진을 하엿다

人事

◀李重宰氏(東一銀行永登浦出張所主任)東大門支店支配人으로榮轉人事次二十九日本社永登浦支局來訪
◀李澤氏(東一銀行本店支配人代理)永登浦出張所主任으로榮轉人事次 同上

年少한少婦가 男便虐待로死亡?

仁川署서解剖에着手

【仁川】어린소부가 나희만흔남편을실혀하다가 구타치사까지당한가련한사건=부천군(富川郡)대부면(大阜面)남리(南里)홍계명(洪啓明)(三二)은 약륙개월전에 동리리간난(李干蘭)(一七)을 안해로마지한후 신혼의단꿈을 꾸엿스나 나희어린 그는항상 그남편을실혀함으로 그의남편은 매일가티학대를 함으로 견대다못하야 그는남편을거려 인천서에상해죄로고소를 제출하얏든바 인천서에서는 그남편을 인치한후 상세히취조하는 일방 삼십일에는 고수(高須)순사부장이하 수명의경관이 사체를 해부코자 현장에급행하엿다 해부결과에따라 상해치사여부가 결정될터이다

委任밧고賣買한걸 詐欺라고脅迫監禁

契約金二百圓을도로차저내고 鍾路署에걸려被調中

시내 종로서사법계에서는 이십구일 시외의정부리(議政府里)변재수(卞在洙)(三五) 시내도염정(都染町)민영택(閔泳澤)(四五)외일명을 붓잡아다가 방금 협박(脅迫)과 불법감금(不法監禁)혐의로 엄중취조중인데사건내용인즉 수일전에 충청남도론산(論山)사는 변상완(卞相完)이라는 사람이 전긔 변재수에게서 론산에잇는토지약간을 삼천원에 팔기로하야 그계약금으로 이백원을 바덧든바 그토지소유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나 전긔 변상완이가 매매위임을 바든것을전긔 변재수등이 남의 땅을 자긔것으로 속이고팔라하엿다고 그의집에 데려다가 감금해노코 협박하야 주엇든 계약금을 도로 빼아슨것이라고한다

銀河水 고무신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新設町三三六番地
電話光化門一八三七番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世界 SK 世界 運動靴

朝鮮向織物 一等品 二等品 ハギレ 卸問屋
高橋清問屋
大阪市南區米吉橋東詰
電話東四三〇一一三番 振替大阪四二三三番
取引銀行 三和銀行松屋町支店 住友銀行

東劇座公演第五週
光明을잃은사람들 全二幕
金健…作
光明을잃은地下村의人間들! 그들은그네들의環境에서永遠히버서나지못하엿다! 그러나그들은단지 나의추함하렷다? 이것은우리들의이야기가되고잇다
不具의안해 一幕二場
周峰趙…作
貧富의境 全一幕
洛山學人…作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③二三二四

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但三回興行中에限하야 無說明映寫)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리챠ㅣ드·뽀레스라부스키監督
메추포리탄 (Metropolitan)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天才少女젠·원서朝鮮에데뷰!!
나는우리재롱꺼리
◆日活超特作映畫
天才의登場!! 눈물과수合의交錯!!
緣の地平線 前篇 (三日)
(次週封切) 오페라·뮤직꼬라운드、템플의愛國者、로만스誕生
全鮮第一 映畫殿堂
團成社

六月二十八日낫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
大活劇 米國마스코트社超特作全發聲版
流線型盜盗列車 前篇
快人…쫀우엔氏大活劇 TP막크·氏
暗夜를爆走하는流線型怪盜列車를 日本破壞魔의出現…惡魔非道의才智를發現自在! 그그림자가낫타나는處所는?
大都映畫社特作映畫
時代劇 次郎長身代り旅
監督 森田晴夫 主演 藤間林太郎氏 北見禮子孃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三三番
桃花劇場
永樂町 電話本局三三番
中央館

淋疾
蔘茸五淋錠
朝鮮靈藥研究所
京城府大和町三丁目 振替京城一三四六番

堅實하고有望한
직업은장갑
專屬製造家募集
自動休針裝置의特許
京城府鍾路六丁目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産業

移秧이일러야 稻는豊作을可望
今年은特히旱魃로移秧이遲延
平年作以上難望形勢

昨年來農情勢가 極히 窮迫한이때이다 今年農形의 凶豊은 큰 關心處인데 這間의 旱魃은 果然 稻作에 어느程度까지의 被害를 주엇슬것인가하는것은 今年農形을 豫想하는 重要資料로 더욱 一般의 注意를 끌고잇다 稻作의 一般的 觀察로보면 移秧의 程度如何가 첫問題인데 從來의 記錄을 보아도 移秧이일러야 豊作이엇든것만은 昭和五年의例가 가장有力히證明하고잇다 即 左記表에 依하면 六月末日까지에 移秧面積이 八割은되여야 平年作으로 조흔便이나 今年은 節季가 느젓든데에 旱魃때문에 더느저진것이 事實이다 昨今 全朝鮮各地가 移秧最盛期임으로 반듯이 크게 悲觀할 바도 아닐것이나 大體 推想으로는 잘되엿다해도 六割程度가 아닐까하는것이 有力한 觀測임으로 今後의 天候如何도 關係가 크다하지만 今年農形은 平年作以上은 바라기힘든모양이다 따라서 方今集計督促中인 六月末現在의 移秧狀況은 크게 注目을 끌고잇다

▲累年畓移秧面積百分比

年	六·三〇	七·一〇	七·二〇
昭和三年	六六·八	七〇·六	八七·七
四年	四六·八	九五·一	八九·九
五年	九〇·〇	九九·四	一〇〇·〇
六年	六六·〇	九二·六	九九·一
七年	七七·三	八八·八	九五·三
八年	八四·七	九九·二	同
九年	八五·三	九二·四	九六·三
十年	八三·九	九二·七	九九·三

老衰潤葉樹의 根株更新法
江原道試驗成績頗良

江原道山林課에서는 赤松林下又는 萌芽地의櫟、楢、굴참나무等의潤葉樹의 老衰한 根株의更新試驗을 今年二月 地下結氷期에 春川、原州、鐵原、高城、蔚珍、江陵、寧越의七個郡에서 各樹木에對하야 一段步식 試驗을하여본結果 優秀한成績을 어덧는데 그中에서 가장優秀한것은 水楢로 原州郡에잇서서의 이에對한 成績을보면 萌芽數一株에서 十四本 六月二十日現在로 가장만히 자라난것은 四尺에達하며普通은 二尺五寸가량이다 이것을 自然放任한것에 比較하야보면큰 差異가잇다 그다음에 成績이조흔것은 楢栢이어서 萌芽數八本 二尺五寸에 達하는것이잇고 櫟 굴참나무도 第三位로 모다 成績이 優秀한바 그方法으로는打折法、功取法、鋸挽法、根功法等을試驗한結果 打折法이 가장簡便하고 效果도만타 그리고 주먹만한株에잇서서는 特히 成績이조코 老株는그에比較하야 効果가적은모양인데 前記試驗을施行한데와 施行하지안흔데가 一目瞭然하게 差異가잇슴으로 道에서는 營農上 必要한綠肥、堆肥等 自給肥料增産의 資料로潤葉樹에 이方法을 널리應用獎勵할豫定이라한다

鑛山朝鮮의決算
産額八千八百萬圓으로
그中金이約六割을占領

昭和十年中 朝鮮의 鑛産額은 總督府鑛山課에서 調査中이든바 最近 大體의 集計를보아 近近 一般에 發表하리라는데 그總額은 八千八百萬圓에 達하야 前年의 六千九百萬圓에 比하면 一千九百萬圓의 增産이며 其中金이 五千百九十萬圓으로 總額의 約六割을 占하야 前年의 四千百萬圓에 比하면 一千百萬圓의 激增이라한다

小野田洋灰 古茂山工場完成

朝鮮 小野田洋灰의 古茂山新設工場은 드듸여 完成되엿슴으로 이지음 火入式을行하고 目下試驗操業中인데 七月下旬부터 本操業에 着手하야 八月부터 製品을賣出하기로 되엿다。이結果 同社의 能力은 年間十八萬噸이다 이結果 同社의 能力은 川內里工場의 四十二萬噸과 勝湖里工場의 三十二萬噸을 合하야 九十二萬噸으로 急增하게되엿다

春繭共販消息一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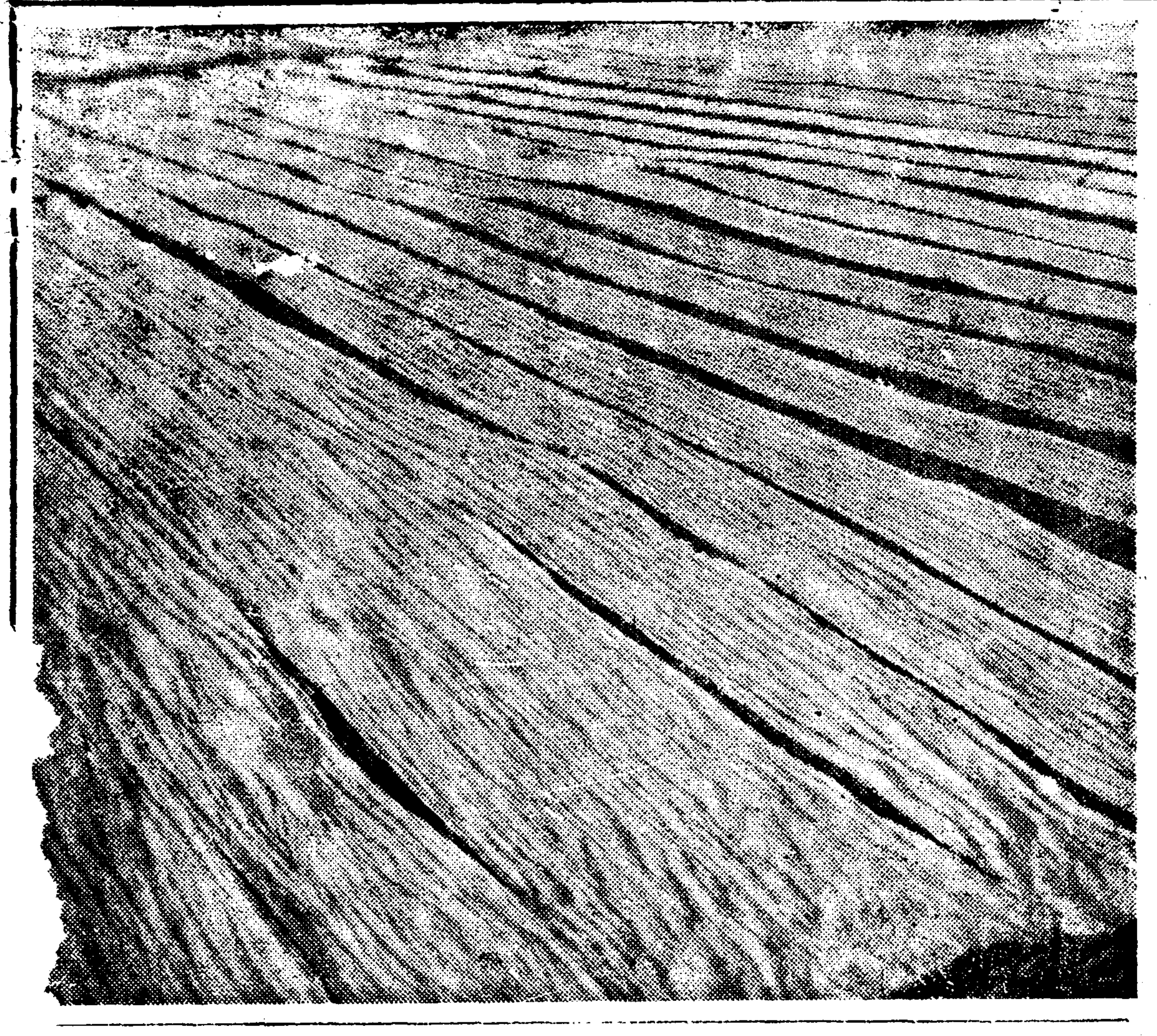
▲新市 平北蠶業組合에서는 七月一日부터 十日間 新義州、天摩三面中心地인 新市共同販賣場에서 春繭共販을 實施하기로되엿다는바 今年生繭時勢가 조흘니만큼 一般은 期待를 가지고잇다고한다

▲永興 農村副業으로 養蠶을 獎勵는 每年郡農會에서 蠶業技術者를 採用하야 指導의 徹底를 期하고 蠶繭增産에 注力하야 蠶種掃立期만되면 各地方을 巡回식히는外라 農家에서도 養蠶技術者 關係上 今年度에도 全永興掃立枚數가 一萬九十枚에 達하엿는데 그에對한 收繭豫想數는 最下로 六十萬貫은 突破하리라는바 今年은 氣候가 適當하기때문에 養蠶의成績은 良好하다한다 그리고 農會共同販賣繭時勢는左記와如하다

▲特等三圓四十六錢 ▲一等三圓十七錢 ▲二等二圓八十七錢 ▲三等二圓五十八錢 ▲四等二圓二十八錢 ▲等外一圓九十九錢 ▲中繭一圓四十錢 ▲玉繭一圓十錢

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圓)	最低(圓)	實勢(圓)	掛目	數量(貫)
六·二三	慶南蔚山	白	三·四四	二·六六	—	三六·九四	一四二·〇〇〇
〃	全北錦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居昌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平南成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咸南文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二六	平南江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慶北安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慶南居昌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平南順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全南光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平南陽德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江原春川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黃海信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全南咸平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平南成川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忠南瑞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黃海谷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金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全北全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全北南原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江原金化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二七	平南江東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陽德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慶南居昌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咸南文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平南寧遠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本據探査次 慶北試驗船出動

慶北水産試驗船 鷄林丸은 一키로와트의 無電裝備를 맛치고下關으로부터 二十三日 浦項으로歸港하얏는데 同船의 科學設備는 總督府의 試驗船을 除外하고는 他에 그比를 보지못하는것으로 爲先第一回의 企圖로遠洋漁場의 開拓과 發見에 進出할려인데 이機會에 從來부터水産界의 수수꺽기로 아즉 解決되지못한 鰮의 本據 即 鰮은 어데서 나서 자라는가를 究明하야 그回游狀況을아라 곳 이를 無電으로 通信하야 敏速히 漁船을 出動식히어 不漁의 解消하려는 遠大한 企圖로 不遠出動하리라한다

忠北特産布帛 大增産計畫
道에서工藝所設置

忠北特産物의 一인 淸州『파렌레ー스』(布帛加工品)은 現在 年産額一萬圓을 産하는바『파렌레ー스』는 近年輸用物로 益益 聲價를 노피고잇슴으로 道當局에서는 이번 淸州郡內에서 年産約一萬六千打의 生産을 目標하는 增産獎勵案을 세웟다 同計畫은 全朝鮮을 通하야 첫試驗으로輸出用布帛의 生産을 主로하고따로 지갑 첵보의 刺繡品等 加工方法이 類似한 國內用布帛品의 加工을 하게하고 主로 新設되는 淸州邑共同作業場에서生産식히기로 되엇는데 技術傳習을爲하야 生産地域에서 講習會도 開催하기로되엇다 그리고 淸州邑의 共同作業場을 忠北『파렌레ー스』工藝所에 貸付하야 講習과 加工을 하게하기로되엇는데 道에서는 同工藝所의 講習會講師、助手兼務員 設置費로 費用額의 五割을 補助하기로되엇다 講習會開催要項은 다음과갓다 ▲受講人員約五百名▲講師 忠北『파렌레ー스』工藝所▲期間 一講習五十日以內▲講習標準 淸州邑을除한淸州郡內 各面에서는 될수록百里洞을 單位로하고 講師一人의 講習人員은 二十名乃至三十名▲講習生十二、三歲以上三十歲未滿의 女子로 受講後繼續하야 加工에 從事할 希望이잇는者▲講習科目 刺繡技、陰加工、國內用特殊加工品▲材料와經費는모다忠北『파렌레ー스』工藝所의負擔

鰮巾着網許可『不均衡』에不平
淸津의關係者蹶起

【淸津】數個月前부터 豊漁를 豫想하고 巾着網漁業의 新規許可願을 提出하고 今日이나 明日이나하고 許可나기를 焦燥히 苦待하던 鰮巾着網의 許可는 咸北의 出願總數五十七件中 겨우 十六件이 許可되엿는데 그중에도 咸北에서는 淸津이 鰮漁業의 中心地임에도 不拘하고 단二件밧게되지아니함으로 關係者들은 許可件數의 不均衡을 非難하는 不平의 소리가 놉다하며 特히 淸津東海岸有志들은 이에憤慨하야 지난二十七日 道産業課長을 訪問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한다

第二回緬羊輸入

今年度輸入緬羊의 各道에 配付할 第二回輸入一千二百四十三頭는 七月七日 大阪商船얼보르는丸으로 南浦에 陸揚될터인데 그配付는 東拓新溪牧場 五百四十 黃海 五十 平南 百二十 江原 五十 咸南北 各百七十 慶南二十二 赤星牧場 五十一 北鮮支場 三十 關東局 四十으로決定하얏다

旱魃과森林關係 忠北서實地調査

忠北道에서는 林業施設上 劃期的試驗으로 森林과旱魃과의 關係를 實地調査하야 旱魃이 森林에如何한 被害를기치는가 또는旱魃에 對處하자면如何한 林業施設을 하여야할것인가를 檢討하기로되야 目下 荒廢地에는 山砂防關係職員 森林地帶에는 林課員六名이 分擔하야 調査中인데 그結果가 매우 注目되고잇다

井邑特産
―井邑支局一記者―

"苧葉颶風翠浪齊"
苧麻의殆半은原料그대로移出
苧布製織은날로衰微

現下 朝鮮의産製한 特用作物의一로 總督府에서 積極獎勵하는 苧麻를 原料로 만드는苧麻布는 井邑古來特有의 産物로서 全朝鮮에 著名한지 己久하다 其起源及 沿革에對해서는 이러타할 資料에徵할바 업스나 東史에 高麗忠烈王時代의 文獻에依하면 有尼獻花紋苧布于公主 公主以爲劣玩遂爲珍 이라는 句가잇고 또古詞에日 「苧葉颶風翠浪齊」라는 句가잇슴에依하야 苧麻의 栽培는 實로 去今六百年前부터 인것이 明白하다 苧麻의 歷史를 存續한功勞는 斯業에 從事해온 生産者의 努力에잇슴은 故毆를 不要하는바이다 現下井邑郡內 苧麻作付面積은 三百町步로 年産高三萬貫에 價額三十萬圓을 算하는데 其纖維가 極히 柔軟하고 耐久力이 富하며 特히 光이潤澤하야 全朝鮮에 名聲이 놉흔『韓山苧布』의 原料로 使用되나니 忠南의 韓山苧布가 全朝鮮의『韓山苧布』로되는것은 全혀 品質이 優良한 井邑苧布原料에 負하는바이다 其外에도用途가 廣汎하야 日本內地人의 浴衣地 洋服地 兵兒帶座蒲團地等等의 原料로 需要는 逐年增加하는 勢에잇슴으로 斯業의將來가 자못有望한터이다 此苧麻 栽培法을 本欄에 紹介함은 必要한일이나 其栽培法이 極히複雜하야 만흔紙面을 要함으로此는 他機會에잇서서 發表하기로한다 右記 年産高三萬貫中 二萬貫은原料그대로 忠南에 移出되고 殘高一萬貫은 元地에서苧布二萬 數千疋을 製織하야原料苧麻中 優良品은 此를移出하고 最下等原料로서 苧布를 製織하는關係上 製品이 粗惡하고尺幅이 一致치못하야 高品의 價値를 喪失케되어逐年 衰退하는傾向에잇슴으로 大正十三年에 井邑郡에 苧布組合을 設置하고 技術者를 採用하야每年 數百名의 婦女子에게 苧布織의 講習을 식히어 製織의 改良增産을 指導獎勵하는 同時에 尺幅、品質、漂白 及取引方法의 改良을 圖하야오다가 昭和二年에 前記組合을 井邑産業組合으로 改稱한以來 出廻品都買收主義를 取하고特히 苧麻에對해서는 從來忠南苧布共同組合과 取引해오는바 昨年度 取引契約에 際하야 苧麻取引價格引上과 減量加算撤廢를 要求하고 强硬히 主張하얏기 때문에 드듸어 契約破裂에 至하얏는데 忠南側에서 此를 奇貨로 하야 井邑産組가 常業者로 부터 買收하는 價格보다 一貫에三十錢 乃至 五十錢의 高 密買를하므로 此에 對한 防止策을 講究한바 價格은 從來보다 騰貴되어 最初 一割分으로부터 漸次 三割까지

의 利上을 보게된結果 近年에 드문 時勢로 販賣케되엿다。이와가티 一組合都買收에限치안코 競爭裡에서 自由販賣함에잇서서 正當한 時勢를 본 生産者一般은 井邑産組에 對한 怨聲도 업지안타。

그러나 苧布는 全部家內手工業의 領域을 脫却치못하얏나니 手工的纖維製織으로 在來織機로製織함으로一疋을 製品함에 三十日이라는多數日을 要할뿐아니라 井邑苧布의 大部分은 慶尙道로 移出하야 主로 祭服用으로 消費되여오든바 時代의 進運에따라 漸次그 用途가 狹隘하여지는 한편으로 人造絹 其他 各種代用品 卽 近代機械工業製品에 壓倒되어 手織苧布는 近路를 빼앗기는 狀態에 陷하야 收益이 一日에 不過五、六錢임으로 生産高도 逐年激減하야 約十四、五年前에 三萬五千疋을 産하든것이 最近에는 겨우 五千疋이라는 數字를 算함에 不過하다 此는 資本主義經濟發展法則에依하야 大規模인 近代機械工業에 依한 小規模인 家內手工品의 破滅이라는 必然的趨勢로 現下 朝鮮諸種産業部門에잇서서 急激히 惹起되는 一般的現象의 하나이다。此에 隨伴하야 數多한 小生産者의 生存權은 否定되고잇고 또刻一刻 深化하는 情勢에잇다 最近 當局의 中小工業에對한 諸種保護政策은 前記事實을 雄辯함에 足하다。井邑苧布生産業의 衰退를 防止하려고 同産業組合은 從來 一疋買收의 手數料五十錢을 昨年四月一日부터 二十錢으로 引下하야 生産品消化에努力한結果 昨冬以來 在庫品 二千疋을 販賣하야 前年에比하면 良好한 成績을 내엿스나 前後收支를 計算하면 結局 四百四十二圓三十二錢이 損害金을 生함에 至하얏다。次年度에는 取捨長短의 最善의 更生策을 圖하겟다는데 一般은 井邑特産인 苧麻布의 將來發展에對한 注目과 囑望이 크다 玆에 井邑産業組合에서 取扱한 苧布의 最近三個年間數量及 買收價額을 示하면 左와如하다。

▲苧麻

年度	數量	價額
昭和八年	一五、八九九貫	八〇、九九三圓
同 九年	一七、七三三同	八〇、三三一同
同 十年	一六、八五二同	一〇一、二五〇同

▲苧布

年度	數量	價額
昭和八年	七、〇六六疋	三五、〇六七圓
同 九年	六、四四八同	三二、二四〇圓
同 十年	四、五五六同	二四、四四二同

(寫眞은 五百三十萬坪우에 허터저잇지는苧布漂白狀況과 싱싱히자란 苧麻)

日用商品市況

漢藥 (京城六月二十日現在)

開城人蔘(一斤) 一等 二等 三等 (以下單位斤) — [illegible]

品名	價格	品名	價格
桔梗	[illegible]	黃耆	[illegible]
知母	[illegible]	黃精	[illegible]
天麻	[illegible]	赤箭	[illegible]
白朮	[illegible]	蒼朮	[illegible]
狗脊	[illegible]	巴戟天	[illegible]
遠志	[illegible]	仙茅	[illegible]
玄蔘	[illegible]	地楡	[illegible]
丹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茯	[illegible]	黃連	[illegible]
胡黃連	[illegible]	黃芩	[illegible]
秦艽	[illegible]	柴胡	[illegible]
前胡	[illegible]	防風	[illegible]
羌活	[illegible]	獨活	[illegible]
升麻	[illegible]	苦參	[illegible]
白鮮皮	[illegible]	延胡	[illegible]
貝母	[illegible]	龍膽	[illegible]
細辛	[illegible]	川芎(上)	[illegible]
白芷(唐)	[illegible]	白芍藥	[illegible]
良薑	[illegible]	白豆蔻	[illegible]
砂仁	[illegible]	益智仁	[illegible]
肉豆久	[illegible]	破古紙	[illegible]
鬱金	[illegible]	莪朮	[illegible]
香附	[illegible]	藿香	[illegible]
澤瀉	[illegible]	香薷	[illegible]
荊芥	[illegible]	薄荷	[illegible]
紫蘇葉	[illegible]	蘇子	[illegible]
茵蔯	[illegible]	益母草	[illegible]
胡芦巴	[illegible]	蔓荊子	[illegible]
麻黃	[illegible]	木賊	[illegible]
燈草	[illegible]	生地黃	[illegible]
牛膝	[illegible]	白葵花	[illegible]
決明子	[illegible]	車前子	[illegible]
連翹	[illegible]	萹蓄	[illegible]
大黃	[illegible]	附子	[illegible]
大戟	[illegible]	白附子	[illegible]
南星	[illegible]	半夏	[illegible]

品名	價格	品名	價格
生乾柿子	[illegible]	沙蔘	[illegible]
白扁豆	[illegible]	五味子	[illegible]
使君子	[illegible]	瓜蔞仁	[illegible]
天花粉	[illegible]	葛根	[illegible]
天門冬	[illegible]	白何首烏	[illegible]
通草	[illegible]	木通	[illegible]
忍冬	[illegible]	金銀花	[illegible]
		肉桂	[illegible]
桂皮	[illegible]	桂枝	[illegible]
辛夷	[illegible]	沈香中	[illegible]
丁香	[illegible]	吳茱萸	[illegible]
		大腹皮	[illegible]
烏藥	[illegible]	沒藥	[illegible]
龍腦	[illegible]		
黃栢	[illegible]	厚朴	[illegible]
杜冲	[illegible]	巴豆	[illegible]
枳實	[illegible]	山茱萸	[illegible]
梔子	[illegible]	郁李仁	[illegible]
金櫻子	[illegible]	枸杞子	[illegible]
五加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牧丹(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茯苓	去脈 自[illegible]至[illegible]以上		
上白伏神	自[illegible]至[illegible]以上		
琥珀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竹茹	[illegible]	白芥子	[illegible]
竹葉	[illegible]		
乾薑(上)	[illegible]	覆盆子	[illegible]
龍眼肉	[illegible]	蓮肉	[illegible]
神曲	[illegible]	麥芽	[illegible]
五倍子	[illegible]	鼈甲	[illegible]
鹿角膠	[illegible]		
朱砂	[illegible]	硼砂	[illegible]
石膏	[illegible]	滑石	[illegible]
硫黃	[illegible]	白礬	[illegible]
甘草	一束 [illegible]	小[illegible]	[illegible]
從蓉	生二斤 [illegible] 法二斤 [illegible]		
當歸	皮斤 [illegible] 製斤 [illegible]		
熟地	封品 [illegible] 特品 [illegible]		
澤瀉	唐斤 [illegible]		
枳殼	一號 [illegible] 二號 [illegible]		
鹿茸	一兩 自[illegible]至[illegible]以上		
熊膽	一分 [illegible]		
麝香	同 [illegible]		
竹瀝	小瓶 [illegible]		
檳榔	上斤 [illegible] 中斤 [illegible]		

=天一藥房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一四六	金銀鑛	平北龜城郡沙峴面	六月八日	龜城郡沙峴面 代表者 張恒文 / 同 金俊植
一三一四七	金銀鉛	平北江界郡干北面	六月八日	寧邊郡泰平面 代表者 金仁燗 / 同 鄭聰樹
一三一四八	金銀鑛	平北寧邊郡梧里面、延山面	六月八日	東京市麴町區丸之內 南俊二
一三一四九	金銀鑛	平北熙川郡長洞面	六月九日	京城府本町 木村武夫
一三一五〇	金銀鑛	平北朔州郡水豊面	六月九日	京城府南大門通 橘洞金山株式會社
一三一五一	金銀鑛	京畿楊平郡丹月面、靑雲面	六月九日	京城府大和町 佐藤政次郎
一三一七四	金銀鑛	忠北淸州郡江西面、玉山面	六月十五日	京城府寬勳町 禹命濬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七九八八	全北金堤郡進鳳面	六月六日	釜山府本町 代表者 玉井丑松 / 兵庫縣神戶市林田區 中島正雄
九七七四	黃海甕津郡北面	同	仁川府內里 代表者 鄭世澤 / 同花平里 河善日
一一三〇八	同	同	同
四三三八	平南孟山郡封仁面	同	神戶市林田區御崎町 鶴山鑛業株式會社
八九三三	同元南面	同	同
一一九二四	同玉泉面	同	同
一三一四三	同玉泉面德川郡蠶面	同	同
一二一四四	同孟山郡封仁面	同	同
一二〇一八	平北朔州郡九曲面	同	平壤府衙嶺里 代表者 金承立 / 大同郡南串面 金福田
一〇〇九一	咸南安邊郡衛益面	同	金堤郡金溝面 宋完燮
一〇九二六	同新茅面、文山面	同	同
九五四七	平北寧邊郡鳳山面八院面	八日	平壤府上需里 代表 劉基俊 / 同 崔應天
九六八一	忠南扶餘郡窺岩面、恩山面	六月九日	京城府吉野町 中田德次
七三五〇	全北金堤郡金溝面	六月九日	金堤郡金溝面 二階堂治郎吉
一二五四二	全南麗水郡華井面	六月九日	水原郡驛道面 洪承烈 / 京城府瑞麟町 代表者 金基錫 / 富川郡永宗面 金連悆
九九二四	黃海平山郡金岩面西峰面	六月十日	大邱府明治町 代表者 尙鐵道 / 鳳山郡楚臥面 安鍾倫
一二四六〇	江原洪川郡化村面	六月十日	京城府南米倉町 西山吉兵衛
九二〇八	忠南扶餘郡扶餘面	六月十日	京城府初音町 長谷川外海男
一一三三四	全南和順郡同福面	六月十二日	京城府南大門通 稻葉顯智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一九六七	江原三陟郡遠德面	六月八日	朴儀胤任意脫退함
一一〇二一	京畿始興郡北面、新東面	六月九日	李台薰任意脫退
一〇七一七	咸南端川郡南斗日面、北斗日面	六月九日	住友別子鑛山株式會社任意脫退함
九七八四	黃海瓮津郡裵山面、松禾郡桃源面	六月十日	李善鎬任意脫退함
一一一一三	平北碧潼郡吾北面	六月十日	文昌郁任意脫退함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九七二七	忠北忠州郡老隱面	趙俊來	京城府峴底洞金應[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一日屆出
一一九七一	全北沃溝郡聖山面	姜弼文	釜山府草梁町徐楨淳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日屆出
一一九二二	江原寧越郡水周面	朴昶勳	春川郡春川邑吳曹泳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日屆出
一二六七七	全北錦山郡郡北面	山本重藏	京城府永樂町竹部要助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日屆出
一〇五八四 一〇七九二	咸南端川郡北斗日面	日本마그네슘金屬株式會社	同靑葉町本多敏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二日屆出
一二八八四	同安邊郡新茅面	上田太郎	安邊郡新茅面李德燦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三日屆出
一二五三五	江原洪川郡北方面	山名松太郎	京城府芳山町大東植松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三日屆出
一二九四一	慶南密陽郡密陽邑	金容合	昌寧郡昌寧面金斗實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四日屆出
一二八二九	同晉州郡美川面	李晩盛	山淸郡今西面閔泳仁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四日屆出
九三六〇	江原淮陽郡下北面、蘭谷面、咸南安邊郡衛益面	土井彦太郎	鑛業代理人大東植松을解任하고淮陽郡蘭谷面李鍾勳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五日屆出
一一七七八	同通川郡碧養面、安邊郡衛城面	朴貞淑	安邊郡衛益面[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五日屆出
一一二六二	平北義州郡水鎭面	金成鑛業株式會社	義州郡水鎭面小玉豊之助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六月五日屆出

黃昏 (123)
韓雪野作 安夕影畵

부운(浮雲) (四)

거리를 방황(彷徨)해오든 사이 정님은 가끔 뒤를 돌아 보앗스나 주인은 보이지안엇다 그래서 마음을 노코 걸음도 드게하엿다。그리자 순용(동생)이가 언뜻 생각낫다。그가 이꼴을보면 엇절가?

그러나 순용은 아직 돌아오지안엇슬것이다。그는 한주일에 두번식 으례 정해노코 외출한다。책을 숨겨가지고 나가는것으로보던지、가는시간에 나갓다가 거진가는시간에 돌아오는것으로보아서 그나가는 까닭을대강은 추칙할수잇섯다。그래서정님은 가끔 잔소리를할때도 잇다

『너 어듸로 가니?』

『암데도 안가요』

『안가는데 뭐냐? 내가 다안다』

『산뽀 나가요』

『거짓말 말어……너 그러다가 회사 면곽 먹으면 엇절레냐? 너만 착실히 뵈면 뭐든지…』

『그러기 누가 엇젓니까?』

『그럼 웨 날짜를 정해노코 꼭 나가는거냐?』

하고 말햇스나 오늘 저녁에는 주임과 만나기로 한까닭에 동생이 먼저 나가는것이 도리혀 다행한일이어서 아무말도하지 안엇다。그리고 전례로 보아서 동생이 아직 돌아오지안엇슬것이니 그도 역시 다행한일이엇다 만일 술이 취하고 옷과 머리와 맘이 허트러진 자기를보고 순용이가

『저게 녀자야!』

하고 욕한대도 할말이 업는거고

『또 러러벌거지하고……』

하고 눈끼빠른 소리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업슬판이다。

그런데 자기집 대문압헤 이르니 무어지 모르게 또 갑재기 무섭이 들엇다。금시 주임이 조차와서 뎔미를 집흘것만갓햇다。그래서 혹시 대문안에 뛰어 들어오기 무섭게 대문을 걸고 조심조심히 마루에 올라섯다。

그리하야 밧갓밖――이전 식이가 잇다가 지금은 순용이가 기거하는 방을、공연히 조심이 되어서 살작 지나치는순간、그는 가슴에서 무엇이 철렁하고 떠러지는것과동시에 주춤하고 섯다。밧갓방문이 소리업시 슬쩍 열리며 불비치 머리를 때렷든것이다。

마치 도깨비장난 가티도 새잡되엇다。술을까지 쭈빗하고 이러낫다。그런데 도

『정님이!』

하고 불르는소리에 코를 때욱 질이나서、

『앗!』

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섯다 지금 가까스루 떼여치고온 주임이 어느새 그방에 와잇는것이엇다。어김업시、목소리도 그러코 얼골도 그러케 뵈엿다。

그러나 그는 주임이 아니라 형수엿다。

『대단히 바뿌구려!』

『호호호…… 난 또 누구라구?』

정님은 역시 놀라면서도 한편 숨이 하ー나와젓다。

『주인업는방에 들어와서 미안하오』

『미안허실줄 아니 고맙소』

『사실은 순용이 만내려 왓든길인데……』

『네 그리서용 그럼 기다려보시죠』

『아니……가보갓 점 들여오셔우』

『순용이를만내려 오셧다면서……?』

『허지만 혼자 기대리기도 무엇하고……』

『그럼 내일 만나시죠』

『내일이요?…… 아녀 당신헛데도 점……』

『나한테요?』

하고 정님은 몸을 쨩오며 거우리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체 하다가 혼자소답모양으로 더시 한번、

『나한테요……』

하고 요부따운 우슴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왓다。

정님은 갑재기 술이취해낫다。박게서 방안으로 들어오니 몸이 휘근그러나고 머리가 휘ー돌아갓다。

그러지안어도 고삐업든 이분망한여자――게다가 술까지 잔뜩 취한 정님에게 어떠케해주엇스면 조흘지몰라서 화수는 그저 보수라작난가리 뭇은 잡지만 뒤적그리며 흘금 흘금 정님을 보다가 빙긋우스며、

『어듸가서 잘 놀앗군요』

하고 잠시 바향을 기다렷다 그러나 기다림여유도 업시、정님은、

『그야 자유지요 그럿찬어요? 가족(家族)의무리를 따라서 맘업시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불융하고 서령한사람은 이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호호호… 그럿찬어요 글세?』

하고、말과는 반대로 냉랭이 지친 고달픈 하품을 하엿다